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양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정 지 형

2007년 8월

중학교 양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연구

지도교수 강 봉 수

정 지 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정지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 국문 초록

중학교 양성평등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정 지 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봉 수

한 인간의 가치 형성 과정에는 수많은 변인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내의 지배적인 가치는 그 사회구성원의 내면에 잠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II장).

이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천 가능한 교육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물론 현재 중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연구도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이었고, 어떤 점에서는 양성불평등적 요소도 잠재하고 있다.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도 높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III장).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의 한계를 돌아보며 보다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을 요약해 두면 첫째, 양성평등 교육과정(교육내용, 교육방법, 수업시간 등)의 개선, 둘째, 학교 환경의 개선(학교장의 시각 변화, 학교공동체의 변화 등) 및 교사연수, 셋째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의 실천(자치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계발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행사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등) 등이다(IV장).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양성평등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미래사회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꾸준한 실천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수준의 양성평등교육은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넘어 인간은 누구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라는 윤리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4
II. 양성평등 실현의 교육적 접근 의의	6
1. 양성을 보는 인식의 전환	6
2. 양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접근 노력	14
3. 양성평등교육의 의미와 의의	18
III. 양성평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의 실태 분석	24
1.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	24
2.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실태	33
3. 관련 교과에 나타난 교육내용 분석	38
IV. 양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방안	55
1.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개선	55
2. 학교 환경의 개선 및 교사 연수	63
3.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의 실천	70
V. 결론	84
□ 참고 문헌	87
□ Abstract	90

표 차례

<표 - 1> 학생의 성별에 따른 교사의 평가 기준	35
<표 - 2> 역사적 인물의 성별 분포	39
<표 - 3> 인물학습에 제시된 인물들	40
<표 - 4> 등장인물과 성역할 고정관념	42
<표 - 5> 등장인물의 성과 직업 활동	43
<표 - 6> 중학교 사회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 나타난 희소성	46
<표 - 7> 중학교 사회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 나타난 언어적 편견	47
<표 - 8> 교과서에 나타난 가정 내 성 역할 분리	48
<표 - 9>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 생활에서의 성별 분석	48
<표 - 10> 교과서에 나타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고정관념	50
<표 - 11> 자치활동 및 수련활동 내용	71
<표 - 12> 계발활동 부서별 활동 내용	72
<표 - 13> 교내 행사 내용	77

그림 차례

<그림 1> 학업성취도 높은 여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	25
<그림 2> 학업성취도 높은 남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	25
<그림 3> 여학생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6
<그림 4> 남학생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6
<그림 5>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학교대표팀의 대표와 부대표구성	26
<그림 6> 결혼한 여성이 생계책임자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그림 7> 결혼한 남성이 생계책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그림 8> 딸의 성적이 우수할 때 권장할 직업	28
<그림 9> 아들의 성적이 우수할 때 권장할 직업	28
<그림 10> 학생회 임원 수련회	71
<그림 11> 1학년 인성수련회	72
<그림 12> 컴퓨터반 계발활동 모습	73
<그림 13> 영화감상반 계발활동 모습	73
<그림 14> 영화감상문	74
<그림 15> 비디오 시청 소감문	75
<그림 16> 영어 Drama반 계발활동 모습	76
<그림 17> 스케치반 계발활동 모습	76
<그림 18> 독서반 계발활동 모습	76
<그림 19> 배드민턴반 계발활동 모습	77
<그림 20> 골프반 계발활동 모습	77
<그림 21> 줄넘기반 계발활동 모습	77
<그림 22> 양성평등 관련 교내 행사	79
<그림 23> 우수작 선정 모습	79
<그림 24> 양성평등 4행시	80
<그림 25> 양성평등 표어	80
<그림 26> 만화, 캐릭터, 포스터 우수작품	80
<그림 27> 시화, 영화패러디, 신문 풀라쥬	81
<그림 28> 가족신문, 광고패러디	81
<그림 29> 전문 강사 초청 성교육 강연회	82
<그림 30> 전문 강사 초청 양성평등 강연회	82
<그림 31> 양성평등 토론회 모습	8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성의 차이로 인해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이렇게 형성된 성 정체감(gender identity)¹⁾은 성장하는 동안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기대되어지는 성역할(gender role)²⁾에 따라 다르게 습득되어져 고정되어 왔다.

성 역할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조건화되고 학습된 정신적·심리학적 측면의 성을 말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의 습득은 그 사회의 적응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화의 기반인 자신이 속한 사회가 규정하는 바람직한 성역할의 관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에서의 성역할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양극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남성다움은 단호함이라든가, 독립적이라든가 자기 확신 같은 도구적(instrumental) 행동 특성을, 그리고 여성다움은 감성적이고 순종적이며 동정심 많은 표현적(expressive)특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³⁾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은 남성의 역할이며, 자녀 양육과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은 여성의 역할로 여겨졌다. 성 역할 사회화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남자와 여자는 많은 면에서 차별적으로 키워져 왔으며, 남녀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은 근본적인 수정의 기로에 놓여 있다. 현대 사

- 1) 한 개인이 소속된 사회문화권에 통용되는 남성다움(masculinity, 남성성)이나 여성다움(femininity, 여성성)을 나타낼 때에는 gender identity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 2)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기 달리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즉 어떠한 태도나 행위가 남녀별로 적절한가를 말해주는 문화적 기대치를 의미하며 대체로 남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비감정적이며 독립적이고 진취적, 직업지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1995, p.303.)
- 3) 박수은,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성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여성 교육 기회의 확대, 가사노동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적 성역할의 관념은 남녀를 생물학적인 성으로 구분 짓기 보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능력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 성역할의 현대적 변화 요구는 우리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 관념이 현대적 성역할 변화 요구의 흐름을 따르지 못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불평등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남녀 불평등의 요소들은 오랜 시간 잘못된 성 고정관념의 경우 여성·남성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⁴⁾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개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기성세대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편견이 그대로 답습됨으로써, 현재의 성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성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참여 정부의 10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 채택됨에서도 알 수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출범 직후부터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2002년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도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도 남녀평등의식의 문제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다.⁵⁾ 이러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관심이나, 경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4) 우리나라 여성들이 강요된 여성성으로 인해 착한 여자 콤플렉스, 성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만딸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린다(여성을 위한 모임, 「일곱가지 여성콤플렉스」, 현암사, 1992)고 한다면, 남성들은 마더 콤플렉스, 능력 콤플렉스, 크기 콤플렉스, 온달 콤플렉스, 가장 콤플렉스, 허세 콤플렉스, 카사노바 콤플렉스에 빠져있다고 한다.(여성을 위한 모임, 「일곱가지 여성콤플렉스」, 현암사, 1994.)

5) 이소연, “청소년의 양성평등의 실태 분석”,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그러나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평등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⁶⁾ 우리 사회에 편재한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이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꾸준한 교육에 의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며 학습과정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기의 교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특히, 발달과정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또한 자아에 대한 탐색과 자신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며 청소년기에 성(gender)과 관련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에 발맞추어 최근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양성평등한 교과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교수매체와 교수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불평등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따라서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이 시도되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에서이다.

남녀 간의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의 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양성 모두에게 행복과 삶의 활력을 줄 수 있을 때 비

6)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 조사 보고(여성부, 2001)」에 의하면 가정의 남녀평등체감지수는 62.5점,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체감지수는 54.6점이었다.

7) 이소연, 상계서, p.3,

8)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양성평등 연구학교(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는 모두 6개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에 1개씩이다.

9)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가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7.8%에 그쳤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05년 7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10개 광역집단 중·고생 1,8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서 문화 연예 인테리어 패션 등은 여성성으로, 스포츠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은 기계 장비 등은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어 남녀학생별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히 나타났다.

로소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에 못지않게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나 성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소극적 양성평등교육¹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명시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는 중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양성평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왔다. 양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과(도덕, 사회 등)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교과 교육활동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고,¹²⁾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¹³⁾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른 연구와 달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행동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이끌

10) 심영란,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분석”,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11) 오재립 등은 양성평등교육의 의미를 ‘양성이 평등한 교육’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 재건에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양성 평등한 의식’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재립 등은 ‘양성이 평등한 교육’이란 사회의 성차별적 제도 및 관례가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재생산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교육을 말하고, ‘양성 평등한 의식’이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양성이 평등한 교육’을 소극적 양성평등, ‘양성 평등 의식’을 적극적 양성 평등이라고 명명하였다.(오재립 외,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2, pp. 152~153.)

12) 대표적인 예로 김미영, “도덕과 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함양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변금교, “사회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등.

13) 대표적인 예로 김미희,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설민호,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등.

어 내기 위한 비판력과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II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탐색한다. 양성에 관한 학문적 인식의 전환을 고찰하고, 민주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제도적 접근 노력과 그 한계를 돌아보면서,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울러 양성평등 학교교육의 실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IV장에서는 이상의 고찰과 검토를 바탕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양성평등 교육의 방안을 탐색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밝혀두고자 한다.

사실 연구자는 현재 현장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고,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양성평등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여 왔다.¹⁴⁾ 여기에 연구자도 일정부분 참여한 바 있다. 연구자의 이러한 경험이 이번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보완적으로 경험적·실험적 연구라는 의미도 갖는다.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 등은 교육 대상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실시한 바도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이 연구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특정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일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제주동중학교는 1·2학년 학생 900여명을 대상으로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II. 양성평등 실현의 교육적 접근 의의

인종, 민족, 성별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 조건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남성)으로 하여금 여성(남성)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를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삶의 질서, 여성(남성)이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삶의 구조가 세워졌을 때, 여성(남성)은 더 이상 여성(남성)으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갈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구조가 세워지려면 양성평등적 인식과 사고의 변화, 그에 걸맞게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함은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의식과 관행까지 양성평등적 성향을 갖추어갈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양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사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접근 노력과 그 한계를 돌아보며, 양성평등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성을 보는 인식의 전환 : 차별에서 평등으로

성차별 혹은 성불평등이란 사회에서 성을 이유로 상이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은 계급 불평등·인종 차별과 함께 인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체계에 해당한다.

UN이 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성차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¹⁵⁾ 또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차별, 남성에 비해 여성을 다르게,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

15) 여성특별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998, p.9.

을 초래하는 대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차별의 문제는 남녀 간의 단순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존중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되도록 길러져야 한다거나, 만들어져야 한다는 획일적인 인간상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같은 가치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¹⁶⁾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단순히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가부장제와 함께 남자는 생계 담당자이고 여성은 가사 담당자라는 성별 분업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남녀간의 성차별에 관한 철학과 과학이 인류지성사에 뿌리 깊게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중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헤시오드(Hesiod)나 플라톤 등은 한결같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원래 세상은 여자가 없는 남성들의 세계였으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남성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자신의 욕정(passion)에 더 얽매어 살아가므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물리적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동물보다는 완전한 존재로 설명했다. 곧 여성은 남성과 동물의 중간에 해당되며 남성이 결혼하여 여성의 동물적 속성인 욕정의 보다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최초로 정립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사람도 물질에 속하지만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남성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반면 발달과정에서 유기체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그 결함으로 여성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갈렌(Galen)이 생존할 때까지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졌으며 역시 중세 유럽에 유행한 연금술도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금술에서도 남자는 변형과정에서 여자보다 더 완전한 형태에 도달했으며 여자도 남자로 바뀌어야 완전한 형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근대 생리학의 개척자 하비(W. Harvey 1578~1657)에 이르기까지 초기 발생학자들은 남성의 정액이 여성 자궁의 혈액에 활성화되면서부터 또는 남녀의 씨가 혼합하여 활성화

16) 강희호, “고등학교 사회 ‘정치생활과 국가’ 단원에 나타난 성차별 내용 분석”,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0.

화되면서부터 진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그들에 의하면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는 데만 필요한 존재였다.

서구의 기독교 입장 역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였다. 여성의 육신이 타락했다는 기독교 개념은 이미 고대 유대사회부터 정립되었고 근대의 기독교적 여성의 평가는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이 부각시킨 유산이다. 기독교가 4세기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았을 때에도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인 존재로 판명되면 곧 마녀라는 탈이 씌워지게 되었다.

철학 내에서의 성차별적 인식의 뿌리에는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도식과 이분법에 근거한 이성=남성, 감정=여성이라는 등식에 기초한 “강력한 유비”라는 논증이 있다.¹⁷⁾

“철학 안에서 이성 중심주의가 강력한 유비를 통해 가부장제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기여를 해왔다면,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가치를 붕괴시키거나 적어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거부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해석에 의해 이분법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논증의 핵심은 성차별적 주장의 궁극적인 원인 혹은 그 논거는 감정/이성의 이분법 그리고 이 이분법을 생물학적 여성/남성에 무차별적 적용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이분법 자체의 해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을 감정과 이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으로부터 어떻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쇼비니스트적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단적인 예를 살펴보자. 쇼트가 말하는 플라톤의 쇼비니즘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부터 도출된다.

17) 임일환(외대 교수), 2003년 철학연구회 춘계 연구발표회 ‘여성적 관점에서 본 철학사’(김혜숙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논평(여성주의와 철학사 읽기).

18) 철학연구회, 「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3. p.121.

“중요한 것은 영혼, 또는 정신적 능력이지 육신적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은 여성 일반이 남성 일반에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약하다는 플라톤의 생각 때문에 여성은 무성적인 보편적 이성에 도달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쇼트에 따르면 결국 육체적인 성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영혼의 무성성을 설명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성만이 무성적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⁹⁾

“육체적인 성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쇼트식의 플라톤 해석은 일견 매우 기이한 결론이다. “플라토닉 러브”로 대변되는 육체와 감성 편하주의자인 플라톤의 철학에서 어떻게 결국 육체적인 성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가? 묘하게도 트릭은 영혼의 이성중심주의적인 플라톤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일반이 남성 일반에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약하다는 플라톤의 생각 때문”이 문제이다. 과학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플라톤의 쇼비니즘이란 피설명항은 이성/감성 이분법과 이성중심주의라는 플라톤의 설명가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성 일반이 남성 일반에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약하다”는 보조가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여성 일반이 남성 일반에 비해 모든 점에서 열등하다는 이 보조가설이 참이면, 여성열등주의 혹은 남성우월주의라는 쇼비니스트적 주장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칸트적으로 말해 그것은 “분석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남성우월주의를 전제로 가정하면, 물론 필연적으로 성차별적 주장이 도출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이나, 철학적 해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전형적 악순환 논증일 뿐이다.

다른 예를 들어 아퀴나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왜곡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여성은 남성에게 지배되어야 하는 최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지적했듯 일단 “여성이 자연의 왜곡”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가정을 받아들이면 성차별적 주장은 필연적 귀결이다.

결국 서양철학사의 유명한 대부분의 성차별주의적 철학자들이 일관적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했든지, 아니면 그저 통념은 통념을 낳을 뿐이라는 진부

19) 철학연구회, 「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3. p.106.

로빈메이쇼트, 「인식과 에로스」, 허라금·최성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36.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어쨌든 이성과 감성을 구분하고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이 쇼비니즘의 원흉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개념적 구분이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어떤 유해한 주장이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념적 구분이 반드시 유용하다거나 정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마녀(witch)/비마녀(non-witch)’라는 개념 구분 자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념 구분이다. ‘마녀’라는 개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여성’이라는 속성을 표상하는 개념이고 ‘비마녀’는 그것의 부정개념일 뿐이다. 문제는 이 개념 구분이 자연 세계 내에 실제 적용대상을 가지며, 더구나 그 개념 구분이 설명적 혹은 인과적으로 유용한 개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면 물론 마녀사냥은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분법적 개념구분 자체가 아니라 이런 구분의 현실세계에 대한 적용의 문제이다. 그리고 마녀사냥의 예에서 보듯 이런 현실세계에 대한 경험적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책은 어떤 의미에서 구분 자체를 “해체”해 버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분을 “해체”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 F와 그것의 부정개념의 논리적 선행적 이성적 구분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으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마녀’라는 개념의 외연이 공집합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한 이상, 더 이상 그 개념 구분의 합리적 혹은 인과적 설명력-한마디로 유용성을 포기한다는 뜻일 뿐이다. 어쨌든 우리가 적어도 서양의 과학사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이디올로지적인 개념적 구분의 “해체”는 그 어떤 세속적 담론이나 맥락화 혹은 어떤 실존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경험적인 문제이며, 때로는 수십 수백 년이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일 것이다.

성에 대한 철학과 과학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할당된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혹은 자연적이거나 정신적인 필연성과 관계되어 있다. 정신과 영혼에 관한 이론 혹은 생물학과 심리학에서의 유해 과학적인 사변에 의하여 양성의 역할과 지위에서의 차이점이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성에 대한 철학과 과학은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상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이지 못한 것, 남성의 행위와 여성의 행

위에 관한 인습적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과학과 철학이 변함에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이론들이 변했을 때도, 사회적 메시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었다.²⁰⁾

인류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양성간의 자연적인 육체적 차이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모든 사회들은 생물학적인 사실들에 상위의 규범을 부과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들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상이하며, 성과 연관된 상징성도 역시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징과 규범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거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이었다. 즉, 남성은 선하고 강하고 철저하게 양심적이고 영리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덜 선하고 덜 양심적이고 덜 강하고 덜 영리한 존재였다. 남성과 여성, 태양과 달, 정신과 물체, 하늘과 땅, 낮과 밤이라는 이분법과 선과 악, 밝음과 어둠, 높음과 낮음이라는 이분법 사이에 상징적 연관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²¹⁾

페미니즘은 남성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다. 오늘날 도처에서 여권 운동가들은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의 시행 결과로 인하여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정의한 모습들을 기술하고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여성이 정치력을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20세기까지 여성을 위한 법률이 항상 남성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그 밖의 세계에서조차 거의 마찬가지이다. 여권 운동가들은 또한 인습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인습적인 사회적 차별들이 종종 여성의 이해관계나 자유에 반하고 있다고 믿는다.²²⁾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남녀 간에 생물학적 차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차이는 생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녀 간에 성역할이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생물학적인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 차에 기초해 각각 달리 겪은 사회적 경험, 즉 생활 속에서 차별화되어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 제니 티치맨, 「사회윤리」, 백의, 2000, p.185.

21) 제니 티치맨, 전계서, p.190.

22) 제니 티치맨, 전계서, pp.194~195.

만일 생물학적 차이만으로 남녀가 사회에서 분담하는 역할을 규정한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기질의 차이나 사회적 역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많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잘 알려진 Margaret Mead²³⁾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뉴기니아의 세 부족의 남성과 여성의 기질과 역할의 차이를 조사한 자료이다. ‘세 원시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뉴기니아의 참블리족은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며, 몸단장 같은 것은 하지도 앓을뿐더러 지배적이고 공격적인데다가 삭발까지 한다고 한다. 반면, 남성은 수동적이고 예술적이며, 섬세할뿐더러 치장에 신경을 쓰고 여성들에 대한 뒷공론을 나누고 있었다. 아라페쉬족은 남성과 여성이 기질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모두 온화하고 협조적이며 동정적인 소위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 면에서도 남녀가 모두 아기를 공동으로 돌보고 있었다. 반면, 먼더거머족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거칠고 폭력적이며 사나운 소위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불신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의 기질과 역할에 본래적인 차이는 적으며, 오히려 그 종족과 사회구조가 강조하는 어떤 기질과 환경적 요인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 역할 분담에도 남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남녀 역할의 차이가 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의 결과임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²⁴⁾

초도로우는 60년대와 70년대에 페미니즘이 생겨날 때의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을 독립적으로 이론적 연구를 한 최초의 학자이다. 초도로우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발달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초도로우는 분리나 구분된 자아가 아닌 타인과 연결된 관계적 자아를 주장했다. 초도로우의 관계적 자아에 의하면 분화는 구분과 분리가 아니라 타인과의 특정한 연결 방법이다²⁵⁾.

23) ‘세 원시사회의 성과 기질’은 미드(1901~1978)가 세 뉴기니 사회에서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의 조사는 두 성의 사회적 인성을 조건짓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탐색한 것이다. 산에 사는 상냥한 아라페시족, 사냥과 야만적인 먼더거머족, 그리고 우아한 머리사냥꾼 참블리족 사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세 집단은 파푸아 뉴기니의 북부 해안에서 반경 100마일 이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인성은 전혀 판판이다. ‘세 원시사회의 성과 기질’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성적인 역할 분담이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성별 차이에 기인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드는 이런 행동 유형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이며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24) 임정빈, 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서울:학지사, 1997, p.64.

많은 정신분석학 이론은 초기 유아 발달기에 대한 설명을 분리-개체화, 분리된 자아의 형성, '나'-'나 아닌자'의 구분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 또는 '중심자아'는 어머니나 양육자가 공급을 돕는 경험의 연속성을 통해 출현한다. 이 어머니의 존재가 내면화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 이 사실은 자아의 핵심이 관계적 내적 자아, 즉 좋은-관계에 있는-자아라는 느낌을 말한다.²⁵⁾

성 정체감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나타내는 성에 관련된 자아에 대한 지각이다. 남성이 남성성을 느끼는 것과 여성이 여성성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 남성성은 더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

어머니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더 타인으로 느끼며, 마찬가지로 아들의 핵심적 남성성 정체감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발달한다. 그 결과 남성의 자아는 '나'-'나 아닌자'의 구분에 더 고착된다. 반대로 여아는 세상과 관계적 연결인 어머니와 연속성 및 유사성을 가지고 성장한다. 그들에게서 차이는 자신의 심리적 존재나 정체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남자가 아니거나 남성이 아닌 존재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나'로 정의한다.²⁷⁾

이별과 상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결을 유지하려는 여성의 힘은 장차 문명의 가장 심대한 방해 요소인 공격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초도로우는 예견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sex)과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 심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성(gender)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과 기능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기에서나 동일하고 불변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성(gender)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르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 성을 이유로 상이한 대우를 받게 되는 성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극히

25) 강희호, 상계서, p.16.

26) 이순형 외 역, 「여성의 심리」, 서울:양서원, 1995, p.204.

27) 이순형 외 역, 전계서, p.209.

28) 강영화, “양성평등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8.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은 이제 우리 시대의 보편가치가 되었다.

2. 양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접근 노력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양성을 바라보는 학문적 인식의 전환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실제적 접근 노력들도 사실 최근해야 본격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개인·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평등(equality)의 이념 자체가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따져보면 인류사에서 평등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온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노예제를 기초로 한 귀족제로 평등은 자유 시민 사이의 평등에 지나지 않았다. 플라톤은 자유로운 그리스인만이 시민적 덕성을 가지며, 인간은 불평등하여 노예는 본질적으로 노예로서의 대우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이 중 특수적 정의를 평등이라고 하였다. 근대 민주사회가 열린 이후에도 인류는 오랫동안 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평등의 내용이나 실현의 정도 및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한 시대에서 평등으로 간주되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불평등으로 인식되어 배척되기도 하고, 어느 사회에서는 평등으로 인정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용납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초기의 평등사상은 가장 협소한 의미인 기회평등의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자유로운 경쟁의 형식적 절차와 과정만이 강조될 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 달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는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인 평등은 단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개인 간에 많은 차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개인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경우, 평등 원칙은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평등의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입장들은 성별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주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초기 남녀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평등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상 특정집단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허용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남녀평등을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부장제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축적됨으로써 기회의 평등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즉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 하에서 기회의 평등은 간접적인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형성되는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회의 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평등 개념이 조건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남녀평등을 수학적,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평등의 기본 원칙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비교 대상인 존재들이 동등할 때만 타당하며, 사실상 동등하지 않은 존재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현재 불평등한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경쟁의 조건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다. 현 사회구조가 여성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전담자로 인식하는 한 여성은 평등하게 보장된 법적인 기회조차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결조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성평등문화 우리가 만들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pp.2~3.

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에 있어서 공동육아시설이나 공동식당 등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이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될 때, 비로소 기회의 평등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평등화되어도 역시 실질적 평등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건이 평등하다 해도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가 가부장적인 상황 하에 놓여 있다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사회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처럼 조건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결과의 평등이다. 즉 단순히 ‘분리의 금지’나 ‘차별 금지’ 등의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기 어려운 집단,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 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차별 관행은 개선하고 성별 분업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법률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잠정적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과의 평등은 자유 시장적 경쟁의 개념으로 볼 때 남성 집단에 대한 일종의 ‘역 차별’(reverse discrimination)³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개념에 모순된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평등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와 남녀평등이 달성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또한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등 사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 위주의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적 불평등이 지배와 착취의 구실이 되기보다는, 그 차이를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정의와 평등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³¹⁾

이러한 점에서 이상화가 주장하는 ‘차이’와 ‘해방’의 정치학은 주목된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남성편향을 중립

30)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인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차별수정조치(affirmative action)이라고도 한다.(피터싱어,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7, p.69.)

31) 심영란, 상계서, p.8.

적인 기준으로 해 왔으며, 그 기준에서 이탈된 집단에 대한 폄하는 그러한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가치절하를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³²⁾

따라서 차이의 강조는 기존 지배집단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구조에 도전하기보다는 재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맥락과 상황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 즉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각각의 특수한 체험과 문화, 사회적 기여도가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등을 논할 때 차이도 함께 논의해야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할 수 있고, 차이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것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분리주의를 영구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차별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위해 수행될 때 해방의 정치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따라서 차이의 초점은 차이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차이에 대한 가치규정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천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근본적인 경험들을 의미 있게 해주는 사회, 문화, 역사 등 삶의 다차원적 맥락들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탐구활동들이 상대를 구체적 행위자로 존중하게 하는 그 자체로의 실행이며, 윤리다원주의의 가능조건이다. 여기에는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며, 동시에 나와 다른 구체적인 인간”이라는 삶의 맥락에서 체화된 지각이 들어있다. 차이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풍부한 가치와 사태를 새롭게 보려는 창조적 개방성이며, 더불어 상대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의 능력이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수용은 타인의 태도나 관점을 합리적이게 만드는 맥락들을 파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며, 타자를 그 맥락 속에서 상황화 되어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그 타자와의 감정이입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³⁴⁾

양성평등은 우리 시대의 보편가치가 되었다. 양성평등의 이념은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차별’로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여성 사이

32) 이상화,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학”,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pp.169~170.

33) 김숙자, “길리건의 ‘배려’관점에서 본 모녀의 ‘자기희생’ 경험과 소통에 관한 연구”, 계명대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7.

34) 김숙자, 상계서, p.18.

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성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여성을 차별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신과 경제수준·피부색·교육 정도·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요컨대, 양성평등의 윤리적 지향은 남성과 여성에서 나아가 인간들은 누구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실현에 더 유효한 전략인지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실제 평등이 현실에서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면서 동시에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양성평등의 이념은 단순히 인식과 사고의 전환, 그리고 사회구조 및 제도적 뒷받침만으로는 온전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양성평등 실현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에 못지않게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관행이 같이 변화해서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가치교육 혹은 도덕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3. 양성평등교육의 의미와 의의

양성평등의 윤리적 지향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넘어 인간들은 누구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다. 양성평등교육은 한마디로 이러한 양성평등의 윤리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은 흔히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양성평등교육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양성평등교육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명시적,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을 비롯, 학교 교육활동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걸친 교육활동이 갖는 성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부단히 개선하는 한편, 학생의

성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성 정형화된 교육경험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성 관계(gender relation)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성평등교육은 남성 우월적 가치 체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성 관계(gender relation)를 탈위계적 관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립된 교육적 인간상을 토대로 생산 활동과 관련된 공적 영역의 삶뿐만 아니라 재생산활동과 관련된 양육적 능력과 돌봄의 윤리³⁵⁾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의 하나가 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³⁶⁾

양성평등교육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초기 사회화의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내재된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편견 등 성 차별적 요소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성(gender)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 정체감이라면 성 역할은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은 사회화의 결과로 형성된다. 태어난 아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달라지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달라지며, 기대되어지는 성격과 시키는 일, 무엇을 잘해야 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등이 달라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는 자신의 성과 그가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격특성, 선호경향,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즉 성역할(gender role)이란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적

35) 길리간에 따르면 도덕성은 정의와 보살핌이라는 두 도덕성으로 구성되고, 두 도덕성은 성(性)과 연관되어 있는데 기존의 지배적인 도덕성 이론이었던 정의윤리에서는 주로 여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보살핌의 도덕성은 무시하고 배제한 채 주로 남성적 특성만을 반영하여 도덕성을 정의(正義)의 관점에서만 편협적으로 정의해왔다고 한다. 남성적 특성만을 반영하는 정의도덕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도덕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도덕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의윤리 뿐만 아니라 보살핌윤리가 필요하다고 길리간은 주장한다. 길리간은 남성들에게서는 분리와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정의, 공정성, 규칙, 권리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덕을 논의한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람들의 소망, 필요, 관심 그리고 열망 등을 중심으로 도덕을 논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자가 도덕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p.229~231.)

36) 정혜숙정경아윤명옥[공저],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p.25.

합하다고 정의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기대에 의해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남성 또는 여성인 한 인간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에게 기대되어지는 태도, 인성, 특성의 행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유, 아동기에서 얻어진 성역할이란 아동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위로부터 부여되는 성질의 것이다. 청년기에는 유, 아동기에 취득하고 확대된 성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각된 행동으로 재조정하는 시기이다. 청년기를 인생의 한 단계로서 다른 시기로부터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특징은 급속한 신체적, 생물학적인 성장변화라 할 것이다. 청년기에 생식기능을 갖게 되고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의 역할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에는 미완숙한 처지에 있다.³⁸⁾

사춘기라고 말하는 청소년 시기는 2차 성징인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사회적·성적 정체감을 형성한다. 이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선생님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합적인 성적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때 남녀 구분에 의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거나 이에 따라 적응하기 위한 훈련들을 한다. 따라서 이때 남녀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매우 정형화된 모습으로 또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사회적 성을 형성해 간다.³⁹⁾

청소년 초기의 소년과 소녀는 많은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성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청소년 초기 동안 그들은 성별(sex)의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인 수준에 이른다.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남녀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성 관련 기대를 부여 받는다. Lynch(1991)는 이를 ‘성 집중화 가설’(gender intensification hypothesis)이라고 하였다. 이 가설은 청소년 초기가 되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동조하도록 사회화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37) 박수은, 상계서, p.10.

38) 박수은, 상계서, p.20.

39) 박수은, 상계서, p.20.

행동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⁴⁰⁾ 이것은 청소년기의 성 역할 고정관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초기의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여자들에게 더욱 보편적이다⁴¹⁾

청소년기에 성 역할 집중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생물학적·사회적·인지적 요인의 변화 때문이다. 사춘기에는 외모에서 남녀 차이가 증대되고, 십대들은 성차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사춘기의 변화는 또한 성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아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기고, 딸에게는 여러 면에서 행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할 무렵이면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 정형화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쓰게 만들므로, 다른 사람의 성 역할 기대에 어울리는 행동을 선택하고자 한다.⁴²⁾

청소년 전기에 작용하는 성 집중화 현상은 다른 사람들 예컨대, 부모, 동료, 선생님에게 동조하려는 사회화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이 성인기로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으로써 고정된(stereotyped) 성인 남성 또는 여성을 모방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성 역할 집중화 현상이 감소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성 역할 집중화 현상이 융통성 있는 성 역할로 발달되는 데에는 사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전통적인 성 역할을 시험해 보고, 전통적인 성 역할이 자신이나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자극을 받은 청소년들이 융통성 있는 성 역할, 즉 양성성(androgyny)⁴³⁾을 가장 쉽게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

40)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고등학교)」, 문영사, 2001, p.273.

41) 허혜경, 김혜수,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학지사, 2002.

42) 박수은, 상계서, p.21.

43) 벵(S.I.Bem)은 성차별주의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밖의 대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할 수 없는 이념(nonconscious ideology)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성차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양성성(androgyny)'를 도입하였다. 양성성이라는 개념은 희랍어의 남성이라는 의미의 andro와 여성이라는 의미의 gyn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는 과거 전통사회나 미분업 상태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기능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었으나 극도의 기능적 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우리 사회가 양성적인 사회로 바뀌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벵의 이론은 시사해 주고 있다. 이후 카플란(A.G.Kaplan)과 시드니(M.A.Sedeney)는 새로이 만들어진 '양성적 인간'의 속성을 첫째, 다양한 행동을 고루 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 셋

라서 청소년들이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동안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성의식을 갖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휴스톤(J.P.Houston)⁴⁵⁾이 성에 민감한(gender sensitive)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한 것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마틴(J.R.Martin)⁴⁶⁾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화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동일성의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만일 동등한 결과를 얻고자한다면,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교육적 처방은 달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⁴⁷⁾

양성평등교육의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성취로 이어져 가족과 사회에서의 성별 분업이 제거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율적 선택에 의한 다양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위계적 성관계가 와해되고 탈위계적 성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⁴⁸⁾ 양성평등교육은 기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등으로 들었다. 양성적 인간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갇혀 있는 이들보다 지능과 창의력이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아개념이 높으며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대등하게 도와주고 받으려는 남자와 나약하지 않고 책임감과 독립심, 결단력이 강하며 성취지향적인 여자는 양성의 경험세계를 초월하여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차정수 외, 「교육 사회학의 이해」, 1997,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지도자료」 재인용)

44) 박수은, 상계서, p.21.

45) 휴스톤은 양성평등교육의 의미를 세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강한 의미의 성중립적 교육이다. 이는 교육영역내에서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 모든 교육활동의 폐기를 뜻한다. 둘째, 약한 의미의 성중립적 교육으로, 이 입장은 성(gender)을 무시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셋째, 성편견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에서 성중립적 교육이다. 휴스톤이 말하는 성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성에 민감한' 혹은 '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다.(오재림 외, 전계서, pp.149~152)

46) J.R.마틴은 미국의 교육철학 영역과 페미니즘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학자의 한 사람이다. 마틴은 우리 사회가 성을 사회조직의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성에 관련된 특성과 과제가 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 우리의 삶과 교육은 왜곡과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녀 두 성에 관련된 특성과 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특성과 과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교육적 이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교육적 이상이 두 성과 관련된 특성과 과제들로 하여금 각각의 가능한 최상의 이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소외되어 온 특성과 과제에 대한 보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성에 관련된 특성과 과제가 모두 각각의 독특한 기여점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모두 동등한 존중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게 되기 위한 교육적 이상으로 '사회문화적 성 차이에 민감한 교육적 이상(gender-sensitive educational ideal)'을 제시하였다. (유현옥 역, 「교육적 인간상과 여성」, 학지사, pp.376~377.)

47) 유현옥 역, 전계서, pp.48~49.

48) 정해숙·정경아·윤명옥[공저], 전계서, p.26.

미래에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양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고 청소년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새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는 아직도 성차별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장을 달리하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와 양성평등교육의 현 실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기로 하자.



Ⅲ. 양성평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의 실태 분석

학교현장에서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명시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와 양성평등교육의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양성평등의식을 점검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성평등의식의 현주소

양성평등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 실태를 파악한 뒤 이들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교사로서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결과

여성가족부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05년 7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국 10개 광역집단 대표 학교를 선정, 중·고생 1,863명, 학부모 971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49) 설문조사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질문(학생:29문항, 학부모:25문항)과 양성평등의식 교육 요구에 대한 질문(학생:5문항, 학부모: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성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설문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일상적인 가정생활 영역부터 직업생활 영역까지를 망라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1) 학생

① 본인 진로선택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여학생이 종사하면 좋을 것 같은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와 “일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남학생이 종사하면 좋을 것 같은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졌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일류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여학생이 종사하면 좋을 것 같은 직업으로 판·검사 29.8%, 교사 14.0%를, 일류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남학생이 종사하면 좋을 것 같은 직업으로는 판·검사 40.3%, 과학자 16.8%의 순으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여학생들은 성별과는 무관하게 우수한 학력을 판·검사, 정치인 등의 직업과 연관시킨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판·검사, 정치인을 여학생들보다 낮은 비율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상대의 성별에 대하여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업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교사라는 직업이 여학생에게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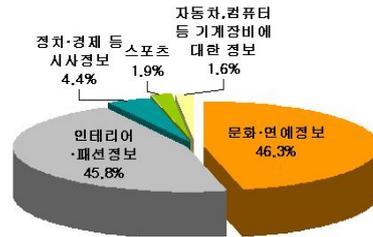
[그림 1] 학업성취도 높은 여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 [그림 2] 학업성취도 높은 남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

②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라면 각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정보의 성격이 매우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정보의 특성에 내재한 성별화된 이미지(문화, 연예, 인테리어, 패션 등은 여성성으로, 스포츠,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은 기계 장비 등은 남성성으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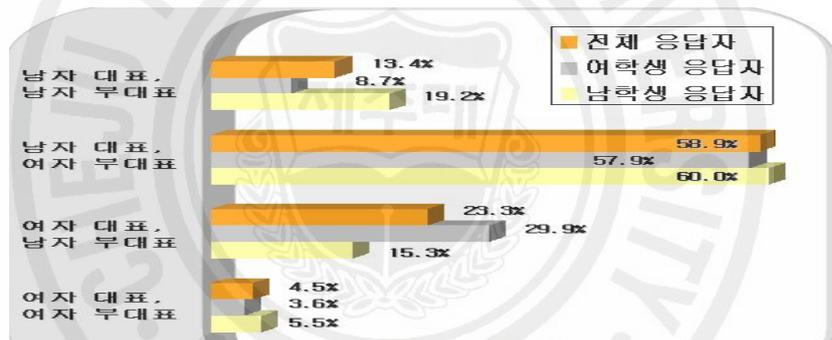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림 4] 남학생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대표성은 남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성을 가지는 데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적 역할에 있어서 대표성은 남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학교대표팀의 대표와 부대표구성

④ 그 외 ‘결혼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중·고생의 66.6%가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동의한 여학생 비율(70%)이 남학생(62.5%)보다 높았다.

⑤ 반대로 ‘기혼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전체의 41.4%가 ‘저 여자 참 멋지다’는 의견이었고 30.5%는 ‘저 여자 남편은 뭘 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⑥ 응답자가 자신을 사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원 1순위로 끄는 대상으로는 기혼 여성(44.5%), 미혼 여성(24.2%), 미혼 남성(22.7%), 기혼 남성(8.6%) 등의 순이었다.

⑦ 여성이 감원 대상 1순위라는 결과는 청소년들이 남성, 특히 기혼 남성을 생계 책임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여성을 가사와 양육 책임자로 전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⑧ 특히 대기업 CEO가 남성일 경우 독신일 것이라는 의견은 7%였지만 반대로 여성일 경우 독신일 것이라는 대답은 15.5%여서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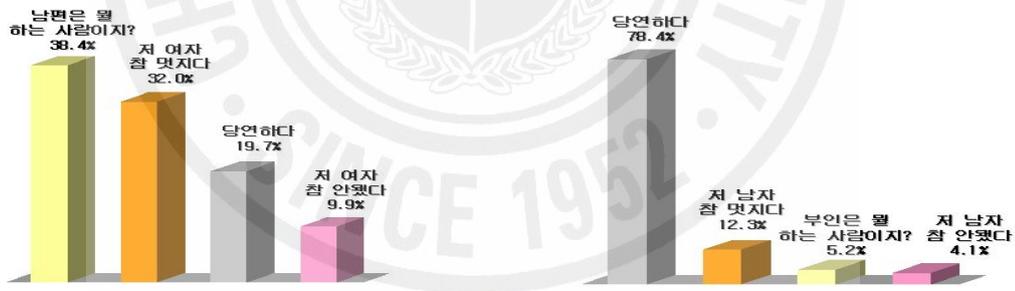
(2) 학부모

①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75%)는 응답을 한 반면 여성이 생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성인 가정에서 생계 책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저 여자 남편은 뭘 하는 사람이지?’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 여자 멋지다’에 응답했다.

학부모들이 남자가 마땅히 생계책임자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결혼한 여성이 생계책임자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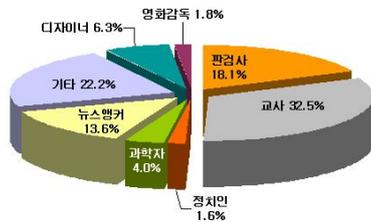
[그림 7] 결혼한 남성이 생계책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자녀 진로지도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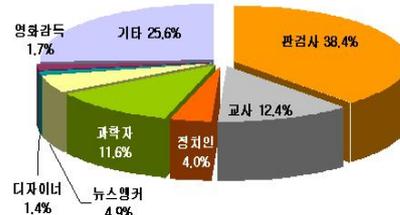
학업 성취도가 높은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기대되는 직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자녀라면 어느 직업을 권하겠느냐’고 각각 묻자 학부모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딸은 교사가 되었으면 했고, 아들에 대해서는 판·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은 아

들, 딸 공통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적성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딸의 성적이 우수할 때 권장할 직업



[그림 9] 아들의 성적이 우수할 때 권장할 직업

2) 제주동중학교 설문조사 결과⁵⁰⁾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이라는 시범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초에 우리학교 1, 2학년 학생 930명과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5-36」을 바탕으로 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하였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학생의 성차 인식 및 교사의 대응,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양성평등교육 등의 내용으로 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① 성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이 있었다.

가족의 생계책임자로서 남성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별활동 반편성에서 성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28.3%의 학생은 남학생은 활동적인 것, 여학생은 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인 대표를 선정할 때에도 남자는 대표, 여자는 부대표라는 응답이 59.1%로 나타났다.

② 정보보유와 미래이상형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정보보유에 대하여 여학생은 인테리어, 패션 정보를 남학생은 스포츠 정보를

50) 제주동중학교는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시범학교를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응답하여 정보특성에 내재된 성별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서는 경제력이 있으며 직장에서 인정받는 남성을, 검소하고 남편 내조를 잘 하며 자녀교육에 진지한 여성을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③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에 고정관념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남학생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수학과목에서 여학생이 우수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에서는 1순위 판검사를 제외하고 2순위로 남학생은 과학자, 여학생은 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④ 가정 생활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었다.

명절에 친가를 먼저 방문하고, 외가를 나중에 간다는 응답이 62.1%나 되었고, 맞벌이 부부간에 더 좋은 차를 남편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41%로 아내 보다 3배나 더 많이 응답하였다. 재산상속에서는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상속한다는 응답이 83%나 되어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2) 학부모

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성별에 차이가 없었으나, 가사노동은 여성(63.3%),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76%)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년의 모습에서 남편 내조를 잘 하며 자녀교육에 진지하거나 세련되고 우아하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여성(62%), 경제력이 있으며 직장에서 인정받는 남성(63%)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회사에서 감원 대상으로 기혼 여성(40%), 미혼 여성(35%), 미혼 남성(18%), 기혼 남성(6.7%) 순으로 꼽고 있는 점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② 가부장적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었다.

명절 때 시집(본가)을 먼저, 친정(처가)을 나중에 방문해야(67%) 하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더 좋은 차는 아내(21%)보다 남편(48%)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산은 아들과 딸 구별 없이(76%)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들(18%)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들의 직장 상사가 여성일 때(50%)보다 딸의 직장 상사가 여성일 때(63%) 배울 게 많다는 생각

을 하고 있었다.

③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성별에 따라 진로지도를 다르게 함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딸에게는 교사(35%), 아들에게는 판검사(31%)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순위에서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자녀의 활동 영역에서도 아들은 활동적인 것, 딸은 정적인 것을 선택하기를 69%가 원하고 있고, 수해지역 복구 현장에 보낼 자녀로 88%의 학부모가 아들을 택하고 있다. 딸은 문화, 연예(57%), 인테리어, 패션(24%) 정보를, 아들은 스포츠(36%), 자동차, 컴퓨터 등 기계장비(35%)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3) 교사⁵¹⁾

① 학생의 성차 인식 및 교사의 대응

남녀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보여주는 성차와 관련하여 수업태도와 학업수행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태도나 학업수행에서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업 준비물을 잘 챙겨오고(67%), 수업시간에 집중하며 노트필기를 잘 하는 학생(72%)은 여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수업시간에 자진해서 대답을 잘 하고(24%), 질문에 창의적으로 답하는(30%) 면에서 여학생보다 강하다고 보고 있다.

51) 한국여성개발원이 2003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67개교 530명의 교사(초등교사 262명, 중학교 교사 268명)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및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의식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이는 교사들은 자신이 양성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식과 실천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85%)가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학업 수행에 있어 성차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성차의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41.1%의 교사가 생물학적 요인을, 35.5%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지적하였다. 교육적 요인을 지적한 교사는 매우 적었으며(4.9%), 71.8%의 교사가 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52.9%)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여성답게, 남학생은 남성답게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응답도 16.0%를 차지하였다. 교사들의 일반적인 양성평등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양성평등한 교수활동을 위한 자체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90%에 달하는 교사가 대학에서 젠더 관련한 교육을 받았거나 양성평등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교사들은(75.6%)는 수업태도에 성차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원인으로 선천적으로 다르게 타고 났다(47.7%)와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 때문(34.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학업수행 측면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수행평가에서는 월등히 높다(70%)고 생각하고 있었다.

■ 이런 성차에서 오는 성적 차이를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78%) 있고, 이 중 63%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었다.

②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

교사들이 상벌과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면에서 성차를 느끼고 있는지와 성별에 따른 교사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수업 중에 벌을 받거나 혼나는 학생은 주로 남학생(43%)이고, 여학생은 없었으며 57%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성별에 따른 훈육의 정도에서 대부분(77.8%) 동일하다고 느끼고 있고, 일부(22.2%)는 남학생을 더 강하게 훈육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비슷한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69.2%)이라고 답하였다.

■ 수업 시간에 칭찬을 받는 학생은 성별에 차이가 없었다.

■ 생활지도와 진로지도에서도 성별에 차이가 없었다.

③ 양성평등교육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매우 진보적이나, 양성평등적 교수학습을 위해 스스로 점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무심코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에만 89%의 교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점검이나 남녀학생에 대한 교육기대가 다른지를 점검하는 데에는 50%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양성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28%)으로 이해하는 교사가 많아 소극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이해하는 측면이 우세하였으며, 대부분(94%)의 교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양성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직무 연수에 대하여 6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중에 54%는 방학 중 연수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 양성평등교육 시간은 재량활동시간(49%), 수업시간(38%), 따로 시간 내어서(13%) 순이고, 교육담당자로는 전문가(30%), 부모(24%), 교사(20%), 대중매체(17%) 순이었다.

■ 양성평등교육 방식으로는 체험활동(역할극 및 창작활동 32%)과 학생들에게 친숙한 활동(TV, 인터넷, 영화 내용 분석하기 26%)을 많이 꼽았고, 교육에서 강조할 분야로 남녀의 고정역할에 대한 편견 없애기(38%)와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남녀의 역할 정립(26%),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23%)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3) 설문결과의 공통점

여성가족부(2005년)와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실시한(2007년)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치상의 차이를 보일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 여성가족부(2005년)에서 실시한 설문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교사 부문은 생략하였다.

① 학생들은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도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공적인 면과 관련하여 누가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은 대표, 여학생은 부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이 나타났다.

② 학생들은 정보소유와 이상형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문화·연예 및 인테리어·패션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스포츠와 컴퓨터·기계장비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은 검소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며 자녀교육에 진지한 것을, 남성은 경제력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고 응답하였다.

③ 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가져야 하는 직업으로 판·검사, 교사의

순이며,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이 가져야 하는 직업으로 판·검사, 과학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④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진로지도를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딸이 공부를 잘 할 경우에 교사가 되어야 하며, 아들이 공부를 잘 할 경우에는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다.

2.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실태

과정으로서의 교육평등은 모든 학생이 그의 유전적 특성이나 사회적 기원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여성관과 남성관을 비롯해서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등에도 성 편견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1) 개별 학교 교육목적에 반영된 양성평등

교육목적은 교육에 의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즉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다. 교육이 자연적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상은 각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각 시대,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것이다.⁵²⁾

각 학교의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의 ‘교훈’을 살펴보면 남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하면 된다. 뜻을 세워 이겨나가자, 발전하는 일꾼이 되자, 진리탐구·문화창달·자기도야, 진실·용감·봉사’인데 반해 여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용서한다·참는다, 도와준다·희생한다, 고운얼굴·고운말씨, 순결·성실·근면,

52) 설민호,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7.

착한딸·어진어머니, 사랑하며·참되며·섬기며, 상냥한 여성이 되자'이다. 이러한 교훈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남학생에게 요구되는 인간상은 진취적이고 건설적인데 비해 여학생에게는 순결과 인내 그리고 봉사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교육목적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과 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교육과정상에 반영된 양성평등

교육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의 이념과 목적, 명시적 교육과정,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교육구조와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성별화된 이중적 차별구조가 내재해 있다.⁵³⁾

첫째, 학교교육이 표방하는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은 형식상 남녀동등하게 제 공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과 성 고정관 념이 깊이 내재하고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지배하는 이데올 로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⁵⁴⁾ 둘째, 명시적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볼 수 있 다.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남녀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인 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양성평등 개념을 반영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 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양성평등 개념이 반영된 교과목은 도덕, 사회, 실과, 기술·가정이다. 특히 7차 교육과정부터는 기 술·산업 교과와 가정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여 남녀 공통으로 필수화 하였다. 이로써 남학생은 가정영역을 여학생은 기술영역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과정에서의 형식적 차별은 줄어들었다.⁵⁵⁾ 하지만 교과서 편찬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의 내용은 현존하는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남성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크다.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성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오는 불평등이다. 특정한 과목의 평가과정이나 수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은 학생들의 흥미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53) 조경원, 「교육과학연구 제29호」, 1999. pp.6~9.

54) 김태정, “학교교육의 성차별실태와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6.

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연구」, 1999, pp.12~14.

된다. 체육이나 과학과목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격려를 받게 되며 여학생의 경우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에 호감을 갖는다는 고정관념은 여학생이 논리적 사고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⁵⁶⁾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오는 불평등 중 교사의 성차별적인 의도나 기대는 더욱 큰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교사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남녀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과 태도는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교사들은 이미 설정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에 입각한 내용을 그대로 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생들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교사들의 편견을 엿볼 수 있는데, 섬세하고 반복적, 수동적인 일은 여학생들에게 시키고, 강한 힘이 필요한 경우나 지적인 일은 주로 남학생들에게 분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남학생은 수학과 과학 교과 등의 추리 능력, 공간지각 능력, 분석 능력 등이 우수하고 반면 여학생은 국어 등 언어능력, 문장력, 단순 암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진로 상담이나 진학지도 역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 입각하여, 여자에게는 어떤 직업이 적합하고 남자에게는 어떤 직업이 적합하다는 식의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도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학생들에 대해 성차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표 - 1>을 보면 남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표 - 1> 학생의 성별에 따른 교사의 평가 기준

우수 여학생 평가기준	우수 남학생 평가기준
1. 얌전하다	1. 활동적이다
2. 인사성이 밝다	2. 모험성이 많다
3. 꼼꼼하다	3. 활기에 넘친다
4. 협조적이다	4. 적극적이다
5. 예절이 바르다	5. 솔직하다
6. 차분하다	6. 독립성이 강하다
7. 눈치가 빠르다	7. 창의력이 강하다
8. 빈틈이 없다	8. 탐구력이 강하다
9. 동정심이 많다	9. 진취적이다
10. 착실하다	

56) 설민호, 상계서, p.30.

57) 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1987, p.42.

이는 양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절반만 개발하게 하는 것으로서, 남성적 특성이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교육내용상에 나타난 양성평등

학교 교육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기능, 가치 등의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교수-학습 자료를 매체로 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는 이상적인 지식, 기능, 가치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교육 자료와 교과서 내에 성 정형적인 요소와 성 편견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들어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했다. (중략)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는 곧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고1 사회교과서, ㄷ출판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 경제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교과서 속에선 가족 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라는 논리가 반복돼 여성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정혜숙 부원장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선 남녀의 출현 비율이 6대 4를 이루는 외형상의 발전을 보였지만 남성은 직업을 가진 생산자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소비자로 그리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⁵⁸⁾

초등학교 5~6학년의 실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을 포함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6년간 연계를 가지고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이다.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선 남녀의 비율이 거의 1대 1을 유지한 반면 중학교 기술 분야는 11대 21로 남성의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줬다. 특히 기술분야에서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지적됐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교과를 시도한 만큼 남녀 모두에게 친화적인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

58) 여성신문, ‘사회는 변하는데... 교과서 속 양성평등 갈 길 멀다.’(2006. 3. 25. 기사)

요하다.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을 보면 여성은 전체 426명 중 주부 245명, 직업인 181명인데 비해 남성은 421명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남성은 전문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등 전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가정과 예술분야로 표현돼 성별 직종분화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생활 내에서의 성 역할, 여성이 보조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부분, 아동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보여지는 성 정형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과 육아·자녀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내용, 올바른 성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수정이 요구된다.⁵⁹⁾

국어 교과서는 지식 전달 외에 사물과 타인을 보는 가치관 교육도 병행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성 역할 개념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중 읽기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총 163편을 분석한 결과 남성 저자가 42.4%, 여성 저자가 12.7%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 편중됨으로 인해 주인공에서도 남성이 77%, 여성이 23%로 남성에 치우쳤고 직업 면에서도 남성은 33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반면, 여성은 주부, 학생,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남성 중심적인 성 역할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어 교육은 ‘언어의 교육’이라 불리는 만큼 교과서 속 언어는 학생들의 일상 언어에 그대로 반영된다. 분석 결과 ‘색시, 여편네, 과부 딸, 아녀자’ 등 여성에 대한 성 차별어나 ‘열 아들 안 부럽다니까’ ‘여편네가 요망스럽게’ 등과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 등장했다. 이와 같은 성 차별적인 부분들은 교과서 속 문학작품의 저자 대다수가 남성 작가들인 데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저자의 성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⁶⁰⁾

도덕 교과서의 경우 지식보다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 만큼 어느 것보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목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교과서에 반영되고 다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

59) 최영선(경남 창원여고 가정과 교사), “남성도 육아, 가사 분담”(여성신문, ‘교사들이 말하는 교과서 속의 양성평등’, 2006. 3. 25. 기사)

60) 정선희(인천 갈산중 교사), “ ‘색시’ ‘여편네’… 곳곳에 성적비하…성차별”(여성신문, ‘교사들이 말하는 교과서 속의 양성평등’, 2006. 3. 25. 기사)

년까지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자주 등장하거나 비중 있는 인물은 주로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및 삽화 총 1358건 중 남성만 등장한 것은 33%, 여성만 등장한 것은 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성차별은 더욱 심해진다. 직업과 관련된 사진 및 삽화 총 271건 중 남성은 81%, 여성은 19%를 차지했다. 직업의 종류에서도 남성은 의사, 정치인 등 고소득의 높은 지위가 많은 반면 여성은 간호사, 은행원 등 서비스직과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인의 수를 보면 총 70명 중 남성이 64명, 여성은 6명으로 여성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을 보여 심각한 성적 불균형을 나타냈다.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위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⁶¹⁾

도덕과는 인성함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과이다. 또한 도덕과에 못지않게 민주시민의 양성을 교육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 교과서도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련 교과이다. 따라서 이들 관련 교과에 반영된 양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보다 더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관련 교과에 나타난 교육내용 분석 : 도덕 및 사회과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교과는 도덕과 사회이다. 따라서 중학교 도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adker⁶²⁾ 등이 고안한 바 있는 분석 기준을

61) 김세연(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등장인물 대부분 남성… 여성위인 10% 미만”(여성신문, ‘교사들이 말하는 교과서 속의 양성평등’, 2006. 3. 25. 기사)

62) 데이비드 새드커와 마이라 새드커(David Sadker and Myra Sadker)는 교수-학습 자료에 나타난 성 차별성에 대한 기준을 6가지(회소성, 언어적 편견, 성 고정관념, 불균형, 비현실성, 분절화)로 구분하였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교과서 양성평등 지수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역시 6가지(여성인물등장, 성 고정관념 탈피, 여성의 관점 반영, 현실사회 반영, 중심주제화의 정도, 언어적 편견)이다.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데이비드 새드커와 마이라 새드커의 6가지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 내용에서의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드커 등의 기준을 준거로 선행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새드커 등의 6가지 기준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활용하고자 한다. 그는 학교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에 성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언어적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회소성, 불균형, 비현실성, 분절화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⁶³⁾

1) 도덕과에 나타난 양성 관련 내용 분석

(1) 회소성

인물 학습, 명언, 교과서 주변 및 함께하기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 2>, <표 - 3>와 같다.

<표 - 2> 역사적 인물의 성별 분포⁶⁴⁾

단위 : 명(%)

구분 \ 분석내용	인물에 등장하는 성 구성	명언에 등장하는 성 구성	교과서 주변 및 함께하기에 등장하는 성 구성
여	2(10)	0	4(4.0)
남	18(90)	57(100)	95(96.0)
소계	20(100)	57(100)	99(100)

63) 김분남,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및 고취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7.

64) 조은숙, “중학교 도덕과 내에서의 양성평등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8.

<표 - 3> 인물학습에 제시된 인물들⁶⁵⁾

학년	인물	관련 단원명
1	원효, 석가모니	삶의 의미와 도덕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안장호, 헬렌켈러	인간다운 삶의 자세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이황, 공자	행복한 가정
		친족간의 예절
신사임당, 페스탈로찌	이웃간의 예절	
	학생간의 예절	
2	이이, 예수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정약용, 프랭클린	민주적 생활 태도
		생활 속의 경제 윤리
	일연, 간디	민족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이순신, 쑨원	애국 애족 자세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3	김삿갓, 노자	개인의 가치와 도덕 문제
	영조, 루소	가정 · 이웃 · 학교 생활과 도덕문제

분석 결과에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공헌한 모델로서의 여성과 그 외에 등장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물학습에 실려 있는 총 20명의 인물 중 여성은 신사임당과 헬렌켈러 2명이다. 교과서 주변에 등장한 인물로도 테레사 수녀, 명성 황후, 이해인, 펄벅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성인물의 부재는 ‘위대한 인물 = 남성’이라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업적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는 왜곡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신사임당도 조선 시대의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정을 이끌며 자아를 실현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본보기’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다. 이는 위대한 남성이 남녀 모두 본받아야 할 역할모델로 제시되는 것

65) 조은숙, 상계서, pp.26~27.

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신사임당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다.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모든 여성들의 귀감이 되는 신사임당은……(중략) 학식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이자 어진 아내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는 사임당이 시대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수행해 내었기에 사임당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학교 도덕 1, P.291)

(2) 언어적 편견

남성 중심적인 용어로 고착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성차별적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일부이다.

부부간 호칭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남에게 자기 아내를 말할 때 : 안사람, 집사람, 아내

남에게 자기 남편을 말할 때 : 바깥양반, 남편

남에게 그 사람의 남편을 말할 때 : 부군, 바깥어른

남에게 그 사람의 부인을 말할 때 : 부인, 영부인, 안어른

(중1 도덕, pp. 198~199)

남편의 남동생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도련님’으로 부르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서방님’으로 불러야 한다. 남편의 여동생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간에 ‘아가씨’ 또는 ‘아기씨’이다.

(중1 도덕, pp.198~200)

‘안사람, 바깥양반’의 경우 ‘안’과 ‘바깥’이라는 구분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영역을 내외로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세계를 한정시키는 물론 여성의 활동을 집안 내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또한 ‘안사람’과 ‘바깥양반’의 구분에서 여성은 단순히 ‘사람’으로 칭해지는 반면 남성은 ‘양반’으로 우대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은 연하자인 시동생과 시누이를 부를 때 ‘도련님’, ‘서방님’ 또는 ‘아가씨’라는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한 남성은 아내의 형제들에 대해서 ‘처남’, ‘저제’, ‘처형’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여성의 시가 형제에 대한 호칭은 높임을 하는 데 반해, 처가 형제에 대한 남성의 호칭은 항렬과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를 호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 호칭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성차별적인 언어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⁶⁶⁾

(3)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출현 장소와 직종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현 장소는 인물의 역할이나 활동에 간접적인 사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 4> 등장 인물과 성역할 고정관념⁶⁷⁾

분석내용 구분	등장 인물의 출현 장소								등장 인물의 직종 분포							
	가정		학교		야외		기타		전문직		기술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노무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문장	2	14	8			5	6	13	6	16					9	11
사진/삽화 분석	72	66	54	75	12	75	12	63	30	108	3	45	15	15	105	111
소계	74	80	62	75	12	80	18	76	36	124	3	45	15	15	114	122

<표 - 4>에서 등장 인물이 등장한 장소를 보면 가정에서의 남자의 출현 비율이 종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더욱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 대변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성별로 구분하여 사적 영역은 여성의 활동 영역으로 공적 영역은 남성의 활동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장 인물의 직종 분포를 보면, 관리직이나 기술직, 사무직은 아직도 남성들의 직종으로 그려져 있고, 기능·노무직조차도 남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성의 직업 활동 영역이 급격히 다양해가고 있음에도 직업활동을 하는 여자 인물들은 여전히 교사와 간호사 등의 제한된 전문가이거나 서비스업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성 정형적인 교육 내용은 교과서를 접하는 남녀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66) 박창원,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1999, pp.171~174. 재인용

67) 강영화, “양성평등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6.

(4) 불균형

도덕 교과서에서 불균형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핵가족 제도에 관한 예문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널리 퍼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도 적고, 부모나 자식이 하는 일도 달라져서 가족 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또 결혼과 동시에 독립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예절 학습 기회의 부족,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 청소년의 탈선과 이혼의 증가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늘어나게 되었다.(중학교 도덕 1, p. 160)

위 예문은 핵가족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문제점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핵가족 제도나 맞벌이의 증가가 마치 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 원인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모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져서...”라는 내용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나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은 결국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관의 차이 또는 기타 환경적 여건의 결핍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점만으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제한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5) 비현실성

비현실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 활동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 5> 등장 인물의 성과 직업 활동

구분	분석내용	등장 인물의 활동			
		직업 활동		비직업 활동	
		여	남	여	남
	문장	21	45	15	15
	사진/삽화 분석	50	120	105	144
	소계	71	165	120	159

<표 - 5>를 보면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 그나마 여성이 일하는 일터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음식 가게나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설정은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비록 사전에 의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직업 활동은 남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제가 개발되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기회마저 차단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물론 교과서에서 남성 위주의 직업 활동에 도전하는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다거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성과 소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편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면서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다루려고 하여 사회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가족과 가정 생활을 주로 다루는 가족의 전형은 부모 양친과 자녀,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라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편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라든가, 직업 세계에서 성차별적 문제, 남성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기술 등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회의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구성될 경우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나 계층 간의 갈등, 소수 집단의 문제들을 간과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6) 분절성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주 내용과 예화, 삽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업적이나 공헌한 내용이 분절화 되는 현상은 많지 않았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절화 현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해 한이 맺혔습니다. 인제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계속하기 힘든 학

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니, 한이 모두 풀립니다.(중학교 도덕 1, p.84)

파커라는 작가는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다름 아닌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라고 한 바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작은 돈을 보낼 수 있는 마음에서 이 다. 이런 마음이 생활화된 서양에서는 누구나 적지만 기부금을 낸다.(중학교 도덕 3, p.154)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샷바느질로 번 돈 1억 원을 내놓은 인천의 할머니, 화장실 청소원으로 어렵게 번 돈을 내놓은 김 할머니, 곰탕집을 하면선 평생 모은 돈 50억 원을 어느 대학에 기부한 부산의 김 할머니들이 그들이다.(중학교 도덕 3, p.154)

위 예문들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활동이나 업적을 주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작은 글씨로 교과서 주변에서 다루면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주 내용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사례이나 주변부에 작은 글씨로 실려 있어서 학생들에게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며 단순한 흥밋거리로 여기게 한다.

2) 사회교과에 나타난 양성 관련 내용 분석⁶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과서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출판된 사회교과서이다. 중학교는 김인정 교과서로 종류가 매우 많아 하나의 출판사를 선정해야 했다. 출판사 선정의 근거로는 가능한 판매 부수가 많은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서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출판된 사회교과서로 선정하였다.

(1) 희소성

희소성(Invisibility)은 예문이나 삽화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거나, 역사적으로 공헌한 여성 인물이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희소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 6>과 같다.

68) 변금교, “사회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32-50.

<표 - 6> 중학교 사회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 나타난 희소성

학년	단원	삽화											
		남	여	남여	계	남	여	남여	계	남	여	중성	계
2학년	V.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6	3	3	12	3	1	6	10	3	1	0	4
	VI. 개인과 사회의 발전	4	3	8	15	7	5	1	13	1	1	0	2
	VII. 사회 생활과 법 규범	4	0	0	4	12	0	2	14	4	3	2	9
3학년	I.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12	1	7	20	10	2	9	21	2	1	1	4
	II.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10	6	4	20	7	3	4	14	2	3	6	11
	III. 시장 경제의 이해	8	1	0	9	5	3	5	13	1	2	1	4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9	0	2	11	3	11	12	26	1	1	1	3
	VII. 지구촌 사회와 한국	5	1	0	6	5	1	9	15	1	2	0	3
합계		58	15	24	97	52	26	48	126	15	14	11	40
비율(%)		59.8	15.5	24.7	100	41.3	20.6	38.1	100	37.5	35	27.5	100

<표 - 6>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삽화와 사진 자료에서 등장인물의 성별 비율에서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시각 자료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 인물이 균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남성이 중심인물이며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여성을 주변인으로 남성을 중심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어 불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

예시문의 경우는 남성 이름은 37.5%, 여성 이름은 35%로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남성 인물의 이름으로는 지우, 기철, 남돌이와 같은 이름들이 쓰였고, 여성 인물의 이름으로는 지현, 희정, 복순이와 같은 이름들이 쓰였다. 중성적인 표현으로는 A, B, 김○○씨, A씨, 장씨, 김성실, 김근로, 박경영 등이다. 따라서 예시문의 경우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적 편견

언어적 편견(Linguistic bias)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편견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면 <표 - 7>과 같다.

<표 - 7>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일반사회 영역에 나타난 언어적 편견

구분	학년	단원	대주제	내용
순서가 고정된 단어 사용	중2	VI. 개인과 사회의 발전	2. 인간의 사회생활	-탐구활동에서 ‘서연이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와 ……’(157쪽) -탐구활동 2번 문제에서 ‘……남녀가 진정으로……’(160쪽) ‘…나녀 간, 지역간…’(162쪽)
		VII. 사회생활과 법 규범	1. 법의 지배와 정의	-탐구활동 보기에서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177쪽)
명사와 형용사의 사용	중3	II. 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탐구활동 인어공주 이야기에서 ‘…바다 마녀를 찾아가…’(45쪽)

<표 - 7>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 ‘신랑, 신부’와 같이 순서가 고정된 단어들 사용되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152쪽에서 ‘엄마, 아빠’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정된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진다.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에 있어서 항상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남성 우위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여성을 먼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번갈아 사용하여 균형 잡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명사와 형용사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녀’와 같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법이나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일컬어 남성에게는 ‘마법사’, 여성에게는 ‘마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성은 긍정적이고, 멋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지만 여성은 사회의 악으로 처형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불균등한 시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적 시각에 따라 언어 표현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Stereotyping)은 각 성에 대해서 정해진 가치와 행동, 역할로 계속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일반사회 영역 중 가정 내 성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들은 <표 - 8>와 같다.

<표 - 8> 교과서에 나타난 가정 내 성 역할 분리

학년	단원	남성		여성
중2	VI.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진 및 삽화	신문보기	과일 깎기
중3	III. 시장 경제의 이해 VII. 지구촌 사회와 한국	사진 및 삽화	골프치기	골프치는 남편 응원하기
		문장	회상에 근무, 딸과 놀기, 국제 기구에서 활동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장 보기

<표 - 8>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 내 성 역할 분리가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신문을 보며 정치에 참여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사일과 양육을 맡고 있는 모습으로 성 역할이 고정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들이 젊은 세대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을 외면하는 고정관념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며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남성의 역할이 주도적이고 우위를 차지한다는 인식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표 - 9> 교과서에 나타난 직업 생활에서의 성별 분석

학년	남성	여성
중2	가수, 방송 스태프, 영화 제작자, 경찰관, 운전자, 법관, 변 호인, 검사, 서기, 국회의원, 의장, 형사, 경찰	성악 전공, 교사, 영화배우
	14	3
중3	남북 적십자 활동 대표자, 국회의원, 증권시장 거래자 및 직원, 방송 스태프, 자원을 개발하는 근로자, 학교 운영 위원회 대표와 의장, 국회 의장, 서기, 구청 직원, 정부·사 대표, 법관, 택시 기사, 총선 후보, 시민단체 대표, 방송 기자, 선관위 관계자, 카메라맨, 공장 근로자, 의사, 회의 의장, 경찰, 학생, 군인, 토론 사회자, 노 사대표, 지하철 운전자, 소방관, 교통 경찰관, 각 나라 의 대표자, 의사, 우주비행사	전화 상담원, 백화점 매장과 점원, 간호사, 환자, 약사, 환자, 사무직 근로자, 교사
	35	9

<표 - 9>와 같이 직업생활에서의 성 역할 분리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사례 보다 4~5 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직업생활에서의 성 역할 분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직업을 구분하는 경우, 집단의 대표는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로 묘사한 경우, 생산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소비자로 묘사한 경우이다.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직업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2학년 ‘사회생활과 법 규범’ 단원에서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는 탐구활동과 변화된 법원의 모습을 나타낸 삽화와 사진의 주제는 법의 원칙이나 재판 진행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형사,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직업에 있어서 성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성 차별적인 자료이다. 이외에도 직업 활동과 관련된 삽화와 그림들에 활동적인 직업, 기술직, 의사나 판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모두 남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성악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 의사를 보조해 주는 간호사, 아이들을 볼보는 교사, 가게 점원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를 축소시켜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치, 경제, 사회적 대표는 모두 남성이고, 각 국의 정부 대표자들도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진의 경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현실을 문제 삼아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의도에 따라 사진 속 인물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삽화의 경우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남녀를 균등하게 그려 모든 학생들에게 진취적인 포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경제 단원에서 생산자는 모두 남성으로 소비자는 모두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할 모델을 심어줄 수 있기에 성차별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내용들도 공장의 근로자의 모습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성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남성을 생산자로 여성은 소비자의 모습으로 그려 경제활동의 주축이 남성이라는 성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성 고정관념의 세 번째 형태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나타나는 성 정형화를 들 수 있다.

<표 - 10> 교과서에 나타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고정관념

학년	남성	여성
중2	공청회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기, 신문을 읽고 비판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참여하기, 수해현장에서 봉사활동 하기, 농구, 스케이트보드 타기, 태권도 하기	독서, 음악 감상
중3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치 참여하기, 사회 변화에 적응 잘하기, 골프 치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가수 공연에 열광하기

<표 - 10>을 살펴보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사진이나 삽화를 통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든 삽화에서 남성은 바지에 짧은 머리, 넥타이 차림으로 여성은 치마에 긴 머리, 긴 속눈썹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은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적이지만 여성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음악을 듣는 등 비활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치 참여 면에서도 남성들은 신문을 읽고 비판한다거나 투표나 인터넷 게시판, 시민 단체 활동,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나 토론회나 공청회의 패널이나 청중으로 보여 지는 여성의 모습은 거의 없다. 시민이 주인이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시민이며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참정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민주 시민 자질을 형성하는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4) 불균형

불균형(Imbalance)은 어느 한 화제나 상황,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한 가지 해석만 해서 편견을 지속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는 것이다. 내용 서술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불균형은 주로 문장 속에서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중 2-V.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1. 현대 사회의 과제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얻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p.132)

위의 제시문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의 사례로 4·19와 민주화 운동들만 언급하고 있을 뿐 역사 속에서 여성의 끊임없는 노력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현대와 같은 권리를 얻기까지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통당하며 목소리를 높여 노력을 해 왔는데, 묘사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반쪽의 관점만 인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례 2> 중3-II.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단원의 길잡이 예시문에서 세계 감부의 예로 컴퓨터 황제인 ‘빌 게이츠’를 예로 들고 있으며 이를 특출한 재능을 이용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p.41)

<사례 3> II-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참고자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를 소개하고 있다. (p.49)

<사례 4>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1. 현대 사회의 변동 특성

탐구활동과 심화과정의 제시문에서 PC혁명의 주도자로 빌 게이츠를 소개하고 있다.(p.98)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제 발전과 사회 변동의 주역을 남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동의 역사에서 인류가 함께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남성의 업적에 있는 것으로 남성의 관점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균형된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서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 발전이나 사회 변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5) 비현실성

비현실성(Unreality)은 현실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비현실성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가족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가정에 관한 사진이나 삽화 모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단란하게 모여 있는 핵가족의 모습이 대부분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비현실성이 나타나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중학교 2학년 'IV-1. 인간의 사회적 성장'에서 참고자료의 삽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이 모여 있는 가정의 모습

<사례 2> 중학교 2학년 'IV-2. 인간의 사회 생활'에서 탐구활동 삽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이 모여 있는 가정의 모습

<사례3> 중학교 3학년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3.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가족 간의 대화와 토론'이라는 사진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모여 가족 간의 토론하는 모습

위 <사례>들은 모습 가족의 형태로 대부분 부모님과 아들, 딸이 있는 핵가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형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이혼율의 증가, 동거 및 혼외 자녀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교과서에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이나 가족의 불안정, 가족의 해체와 다양화와 같은 경향들에 대해 스테이시(J. Stacey)(1991)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가족의 재구성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근대 가족을 대체하는 가족 생활의 새 모델 또는 가족사의 질서정연한 진보의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단일한 가족 경험이

나 규범,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족 변화의 과정이 가족 내의 친족관계나 가족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재구성 과정은 친족관계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계급적, 인종적, 성적 편견을 강화해 온 근대적 가족 각본을 파괴함으로써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거나 재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가족구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족원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관계가 하나의 평등한 혼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육아, 가사 분담의 평등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과 교과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가족 형태를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친족 관계와 부부 관계에 존재하는 성적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게 되어 사회와 가정에서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6) 분절성

분절성(Fragmentation)은 한 그룹이 그들 사이에서만 소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리고 사회에 아주 조금이나마 혹은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사례 1> 중2 - V.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가족법의 남·여 동등권을 요구하는 여성 시민운동’ 사진

<사례 2> 중3- 차례 전 사진

정치화의 과정의 예로 여성단체들의 모성보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앞 시위 사진

<사례 3> 중3 - I.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1.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읽기자료 - 여성 참정권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경마장 사건을 통한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소개에 관한 신문 기사

<사례 4> 중3 - I -3.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탐구활동에서 다원적 이익의 표출과 정치화의 과정에 대한 예시로 출산휴가 확대 요구를 하는 과정을 삽화로 나타내고 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 여권 운동,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여성들의 활동과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여권 운동들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만 서술될 뿐 그러한 참여나 노력들이 남성들에게 또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 현상이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과서를 보면 여성들의 노력은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여성이라는 집단을 사회 속에서 비주류의 분리된 집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

교과서는 현 사회의 이념과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의도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결과도 낳기 때문에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불평등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 내용을 일부 수정⁶⁹⁾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69)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 87쪽의 삽화에는 조부모와 부모, 손자 등 3대(代)가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만 밥을 먹지 않고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주부만 가족과 같이 식사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묘하는 그림에서는 아버지와 아이만 절을 하고 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인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삽화 6개를 수정한 교과서를 2학기 전에 배포하기로 했다. 식사를 하는 그림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성묘를 하는 장면은 어머니도 함께 절을 하는 것으로 고쳐진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 72쪽의 제사를 지내는 삽화에서도 현재는 가족 중 어머니만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도 절을 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또 2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의 96쪽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그림은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집안일은 모두 여성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어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 5. 8. 기사)

IV. 양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방안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이념과 목적, 명시적 교육과정,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 교육구조와 교육환경 등 교육과정 전반에 나타난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 확보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환경의 개선과 양성평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살핀 후 본 연구자가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적용하였던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개선

1) 교육 내용의 개선

양성평등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에서 성차별이 제거되어 양성 평등한 내용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업 자체가 성불평등하게 진행된다면 양성평등 교육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을 다루는 실제 수업에서도 성 차별성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성차별적 교과내용을 수정하는 일이다. 첫째, 교육내용에서 성 차별성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언어적 편견이다. 일상 언어가 남성중심이어서 교과서 역시 언어적 성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아들딸’과 같이 성별에 따라

순서가 고정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또 성 고정관념적인 용어로서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돈’, ‘안사돈’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러운 것,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이 상승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진 여성을 ‘여류작가’, ‘여교사’, ‘여교수’와 같이 남성을 중심에 놓고 여성을 열등한 혹은 주변적인 직업인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혹은 ‘여류’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 이러한 수식어는 여성을 남성과 구분시키면서 여성은 그 집단 내에서 열등한 존재, 혹은 주변적인 존재, 남성이 아닌 예외적인 존재로 특화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성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⁰⁾

둘째, 교육내용에서 성 차별을 분석하는 두 번째 기준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태도나 행위, 직업에 있어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의 관념이다. 즉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생산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성별 분업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⁷¹⁾ 성에 근거한 이분법적인 활동의 묘사로 인해, 삽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남자인 아버지는 공적 영역의 활동자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의식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말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문직으로 출현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어 온 교사, 간호사와 같은 일부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성 차별 요소로 우리 교육내용에 투영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내용에서 성 차별성을 분석하는 세 번째 기준은 희소성이다. 이것은 예문이나 삽화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등장하거나, 역사적으로 공헌한 여성 인물이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여성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총체인 교과서나 그 밖의 교수-학습 자료에서 희소하게 주변적 존재로 다루어지는 것은, 암암리에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든가 주변인이라는 왜곡된 가치를 또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여성의 공헌을 평가절하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성

70) 김재춘, 왕석순[공저],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5개 교과 양성평등 수업지도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제7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p.43.

71)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1999, p.42.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⁷²⁾ 교육내용 구성에서 여성 인물의 출현 비율이 낮거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은 수적인 측면의 회소성의 문제, 그 이상의 성차별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교육내용에 출현하는 여성이 적고, 또 여성이 출현한 경우에도 그저 주변 인물로 다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 주변적인 것이라는 성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내용에서 성 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네 번째 준거는 불균형성이다. Sadker 등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은 불균형성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의 각종 화제나 문제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택적으로 어느 한 집단의 견해와 해석만을 제시하는 편견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숨은 공로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여성이나 일반 대중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제한적인 편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⁷³⁾

예를 들면 현행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여성은 모든 학교 급과는 무관하게 3% 내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동과 여성 인물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숨겨져 온 여성 인물과 여성의 활동을 재 발굴하여 교재의 소재로 삼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다섯째, 교육내용에서 성 차별성을 분석하는 다섯 번째 준거는 ‘비현실성’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면서, 너무도 강박적으로 우리 사회의 밝은 측면만을 담으려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⁷⁴⁾ 예를 들면 교과서에 출현하는 전형적인 가족은 대부분 부모와 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편친부모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0정도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통적인 가족, 특히 이혼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직업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 차별과 관련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사회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교육내용으로 구성됨으로써,

72) 김재춘, 왕석순[공저], 전개서, p.47.

73)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성평등문화 우리가 만들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p.22.

74)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개서, p.24.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 차별적 편견이나 계층 간의 갈등, 소수 집단의 문제들을 간과해 버리게 된다. 직업 진로 단원에서 남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여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조차도 여학생들이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룬다거나,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여건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직업 세계에서 채용, 승진, 임금, 교육 등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문제는 여학생들이 곧 부딪쳐야 할 실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내용의 성 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섯 번째 기준은 ‘분절화’이다. 이것은 여성이 역사나 사회에 공헌한 내용을 글상자 등으로 주변 처리하여 교과서의 주 내용과 별도로 다루면서 분리하여 여성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주 내용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부수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하며 단순한 흥밋거리로 여기게 하는 것을 뜻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관심, 요구, 경험 등을 각각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개정이나 누락된 정보를 추가한다는 목적에서 주 내용과 통합하기보다는 분리된 박스기사나 부분처리, 분리된 장으로 처리하였다.⁷⁵⁾ 이러한 성 차별적 내용은 학교 사회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재생산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 역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의 제거가 하나의 큰 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개선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공사영역간의 인위적 분리 속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주어지지 않아 가정적 삶과 여성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부재를 가져온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활동은 남성적 관점에서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거나 그 의미가 과소평가 되었다. 공적영역에서의

75) 한인택,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현장교육연구보고서, 2002, p.13.

여성의 기여를 찾아내고 인정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현재화 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관련된 교육 내용은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 인물의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과 여성들의 삶과 경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 고유의 경험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가시화해야 한다.⁷⁶⁾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 남성중심의 가치관과 태도 및 신념의 변화를 위한 내용, 모든 인간 및 생명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포함하여 성문제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고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성(sexuality)에 대한 주체성의 고양ی 필요하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성행동에 대한 자기 판단력과 결정력을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태도 등 교육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교육내용의 변화는 재생산되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켜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재평가⁷⁷⁾와 관련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지향적 여성상의 제시

① 직업 활동에서의 적극적 여성 역할 제시

현재 교과서에서 제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하고, 첨단 직업 분야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제시 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내용을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입각하여 묘사하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76) 설민호, 상계서, p.32.

77) 공사 영역간의 인위적 분리 속에서 사적 영역의 삶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정적 삶과 여성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부재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활동은 남성적 관점에서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거나 그 의미가 과소평가되었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기여를 찾아 내고 인정하며,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장하진,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p.37.)

② 사회 활동에서의 주도적 여성 역할 제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이 강조되고,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다 많이 묘사해야 한다. 현재 소비 활동, 봉사활동 위주로 묘사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남성들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정치활동과 같은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여성다움의 변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는 연약함, 부드러움, 섬세함 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강인한 모습의 여성이 보다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④ 새로운 어머니상의 제시

취업모가 보다 많이 등장하여야 하며, 어머니의 직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부를 상징하고 있는 앞치마는 본래의 기능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묘사되어야 한다.

(2) 여성 작가의 작품 및 여성인물 예화의 개발

여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작가의 작품이 보다 많이 실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화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가령 옛날이야기나 동화 등의 경우 등장인물을 여자로 각색하여 재구성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3) 역사적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굴

정치나 역사발전 과정에 있어 여성은 거의 국외자인 것이나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역사 서술 경향은, 지금까지의 역사발전이 남녀의 협력에 의해 이뤄져왔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굴이 시급하며, 또한 이미 알려져 있는 여성인물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 있는 기술을 통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남녀의 가사협업 유형의 적극적 제시

여자의 역할 변화는 남자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원 모두의 책임인 만큼 가사협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다 자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앞치마를 착용한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2) 수업시수의 확보 및 교육방법의 개선⁷⁸⁾

양성평등의식 함양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를 위한 별도의 수업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별도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급별로 최소한 17시간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을 실시하고, 각 교과별로 학년 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교과와 관련된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학습 자료는 기존의 교과에서처럼 반드시 서책의 형태로 개발될 필요는 없으며 영화, 비디오, CD와 같은 영상 매체나 멀티미디어 자료로 개발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양성평등한 수업’은 성차별적이거나 성 불평등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수업 방법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양성평등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제거된 수업을 뜻하며 ‘양성평등의식 함양 수업’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수업을 뜻한다.

양성평등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학생 참여적인 또는 주도적인 수업을 전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나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역할극 및 찬반 토론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 ② 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나 수행정도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 때는 교

7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1999, pp.64~75.

수방식의 문제를 점검해보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개발한다.

③ 다음과 같은 교수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보다 협동적이고 상호반응적인 학습 방식의 이용
- 토론과 공동연구 및 공동작업의 강조
- 학생에게 공적인 수준의 질문과 더불어 개인적 경험에 대해 질문하기
- 학생의 질문이나 응답에 대해 막연히 칭찬하기보다는 칭찬과 더불어 정확한 지도와 적절한 도전의식 심어주기

④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또는 발표기회를 제공할 때나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반응한다.

⑤ 과학실험이나 가사실습 또는 기술실습 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성은 보조적인 활동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⑥ 체육수업의 교수-학습활동에서도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차별에 의한 편견을 갖지 않고, 남녀학생이 함께 순번이나 질서를 지키며, 사이좋게 운동할 수 있게 한다.
- 운동종목을 선택할 때 성별로 지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남녀학생이 협력하여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혼성으로 동일 종목의 조를 짜서, 남녀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훈련하거나 발표할 수 있게 한다.
- 남자 운동, 여자 운동이라는 잘못된 고정 관념을 배제하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교육내용에서 성차별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이때 고려되어야 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재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의 개선이 효과를 이루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수업 시수와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함에 유의할 점 등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상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학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학교 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 환경의 개선 및 교사 연수

1) 학교장의 시각 변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어 집행되더라도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은 단위학교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이념의 실현 여부는 학교의 장인 교장의 영향력에 크게 의존한다.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교육의 전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⁷⁹⁾ 학교운영계획에 성 차별적인 요소는 마땅히 없어야 하고, 양성평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나 요소는 가급적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⁸⁰⁾

2) 학교공동체 변화

(1) 양성 평등한 학교 환경 및 시설을 정비하여 교육환경 구축

양성평등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환경을 점검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든다. 학급 및 학교게시판에 양성평등 게시판을 설치하고, 양성평등 지킴이를 임명한다. 각반 반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자, 교지편집부, 방송반의 학생들을 양성평등 지킴이로 임명하여 게시물 붙이기, 양성평등에 관한 문집작성, 양성평등 관련 활동 촬영 및 편집 등 양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선도하도록 한다. 매월 양성평등자료를 담임과 양성평등지킴이를 통해서 양성평등게시판에 게시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탑재한다.

특히, 학교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방식, 학생회 활동, 계발활동 등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¹⁾

79) 노미영, “교사 언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7.

80) 이용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67.

81)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양성평등교육의 이해」,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2002, pp.107~110.

(2) 학교 운영방식

- ① 학교 교육목표나 교훈, 급훈 등이 성 차별적인지 점검하고 양성 평등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② 학교의 정책과 재원 배분 등이 남녀학생에게 평등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한다.
- ③ 여학생들도 학교 및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 ④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운동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3) 학급 운영 및 학생회 활동

- ① 남학생이 회장이나 반장, 부장 등의 리더십을 갖고, 여학생은 부회장이나 차장 등으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한다.
- ② 남녀가 협력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만든다.
- ③ 부서나 업무 분담은 남녀로 고정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4) 계발활동

- ① 학생의 성별로 구별하여 클럽을 모집하거나, 여학생 또는 남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② 여자클럽 또는 남자클럽이라는 인식이 강한 클럽에 지원하려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있을 경우 이를 격려한다.
- ③ 클럽활동내의 역할 분담은 남녀의 구별 없이 하고, 클럽의 부장에는 남학생, 차장에는 여학생이라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5) 진로지도

- ① 여학생에게는 문과를, 남학생에게 이과를 권하는 식의 진로지도는 지양한다.
- ② 공고나 사관학교와 같이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학생을 격려한다.
- ③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남성의 역할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등, 성별에 따라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삼가한다.
- ④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⑤ 21세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⑥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는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생활지도

①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여자가 ~” 또는 “여자답지 못하게 ~”,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하는 식의 발언을 삼가 한다.

②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③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학생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지도한다.

④ 흡연이나 이성교제 등의 생활지도 시에는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관점에서 지도한다.

3) 교사의 양성평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어떠한 교육 목표나 교육내용도 교사의 해석을 거치고 나서야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자신이 살아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⁸²⁾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성에 따른 행동유형 형성에 교사는 새롭고도 강력한 전수자라고 한다. 결국 교사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표현하고,⁸³⁾ 이를 통해 남성중심문화가 학생들에게 강하게 전달되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학교교육현장을 통하여 강하게 전달되며, 남녀 역할의 분화가 강화되어간다.⁸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성역할 의식과 성차별적 태도는 학생의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의 일상적인 언어나 행동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82) 권영선·윤혜연,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와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방안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연구보고서, 2002, p.8.

83) 노미영, 상계서, p.68.

84) 김현주, “중등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교육실천과의 관계”,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2.

모델이 되며, 그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 근거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관심에 따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교육 활동이야말로 양성평등이 평등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열쇠가 된다.⁸⁵⁾

이와 같이 양성평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이 일종의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의 화신으로 기능한다.⁸⁶⁾ 그러므로 학교에서 성차별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교사들 스스로가 성차별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성에 따른 편견을 배제한 양성 평등한 의식과, 학생들이 성별에 의지하지 않고 개개인의 재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양성평등 의식의 수준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의지는 학생 지도에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하여 미래의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면서 성장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든 아니든 교사의 언행이나 교사 집단의 문화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교사의 평상시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양성평등교육 실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 스스로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신의 뉴스나 관련 기사 등을 읽어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늘 접하도록 하고 서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행동들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교사 스스로가 변화의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의 수업이나 학급활동, 계발활동, 생활지도나 상담활동 등 여러 교육활동 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는 면은 없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85) 김현주, 상계서, p.13.

86) 김태정, 상계서, p.78.

좋은지 교사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⁸⁷⁾ 성차별적인 의식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반향과 문제점을 가져오는지 또 교사 상호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 간의 평등한 관계와 언행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됨을 인식하고 교사의 성별에 따라 능력을 우열화 또는 고정화시키는 편견을 버린다. 성별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남녀 교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업무에 임함으로써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격려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호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련 정보나 의견을 나누면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은 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을 변화시키는 전제조건이며,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바탕이라고 하겠다.

양성평등 교육실천이란 양성에게 동일한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있어서 성 차별적인 요소나 성 불평등한 요소가 없는 상태로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활동이다.⁸⁸⁾

교사들의 행동이 학생들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볼 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일상 언어나 행동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점을 자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사는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이 살아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과 접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이 표방하는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은 형식상 남녀동등하게 제공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의 배후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과 성 고정관념이 깊이 내재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성역할 의식과

87) 정중보, “역할놀이 수업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8.

88) 정혜윤, “중학교 가정과 교과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천의 차이”,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4.

성차별적 태도와 가치의식은 학생의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의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성 중심적 인식의 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교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교육 중에 표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남성중심문화의 가치와 지식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한다.

교사들의 성역할 의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삶에는 전통적인 관념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으며 많은 경우에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남녀의 기질과 행실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교육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자연의 일부이듯이 남녀역할과 내외 구분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가정되어 왔고, 조선시대에 강조된 교육은 여성의 역할 수행에 따른 행위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 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우리의 남녀 양성에 대한 인식의 틀은 공평하지 않다. 남녀가 같은 일을 해도 남자와 여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성차별과 성 억압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는 그러한 성차별적 이중기준을 남녀 사이에 있는 생물학적, 심리와 기질적 차이에서 나온 자연스런 것으로 당연시하는데 문제가 있다.⁸⁹⁾

해방과 더불어 민주주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교육의 양적 증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양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기회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성을 무시하고 성차를 제거함으로써 평등에 도달하느냐 보다는 성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등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 속에서 남녀간의 갈등과 해결 방식, 가사 노동의 분담이나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일 같은 이야기들을 보다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이러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89) 김재용지초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활동을 통한 성평등의식 함양」, 2005, p.1.

양성평등 교육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양성평등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 및 실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의식이 학교 현장에도 파급되어 교사의 의식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근본인 교육에서의 의식개혁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의 책임의식과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양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 교육실천을 위한 가치관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구성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을 다루는 실제 수업에서도 성 차별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⁹⁰⁾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는 있지만, 양성평등교육 실현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성 고정관념 타파와 양성평등의식 내면화는 양성평등교육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조옥라 외, 2002)에서 교사들의 성차별적 교육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부족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의 혼란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조차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이해나 성차별적 교육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 결과, 학교교육이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관심, 능력을 키워주기 보다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기반으로 여학생에게는 여성답게, 남학생은 남성답게 성장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적 시대 상황은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며, 양성평등교육은 바로 그 기본 토대라 할 수

90) 김현주, 상계서, p.17.

있다. 양성평등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실제 교수행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⁹¹⁾

본 절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시각 변화와 더불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공동체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과 학교환경의 개선 및 교사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안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제안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자가 1년 동안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면서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의 실천

본 연구자가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실천했던 내용 중 특별활동(자치활동, 수련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에서 적용했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⁹²⁾

1) 자치활동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학생회 임원 수련회, 학생 활동 및 대의원회의 시 학교 내에서의 남녀 불평등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고, 활동 중심의 토론활동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91) 정해숙·정경아·윤명옥[공저], 전계서, p.6.

92) 제주동중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 2006, p.21~33.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얻은 교육적 효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양성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성차별적인 관행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성차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며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둘째, 특별활동과 교과 학습활동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각 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에게 적용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성역할 정체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각종 교내 교육활동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하여 체험하는 가운데 양성평등한 성역할 정체성이 학교 내외의 생활에서 내면화된 행동 양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의 성에 대한 중요성과 존중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내용은 <표 - 11>와 같다.

<표 - 11> 자치활동 및 수련활동 내용

행사명	시기	내용(주제)	장소	대상	비고
학생회 임원 수련회	3. 31 ~ 4. 1.	- 성별에 구분 없이 임원으로서의 능력 과 지도력 배양 - 수련과정을 통한 성역할 정체성 함양	비자립 청소년 수련원	학생회 임원 (108명)	학생회 임원 및 지도부원
대의원 회의	5. 18.	- 남녀 혼성의 교통지도 봉사활동 - 남녀 혼성의 점심시간 질서유지 활동	다목적실	대의원 (72명)	각학급 실장, 부실장
대의원 회의	6. 27.	- 용의 복장 등 제반규정 지키기 방안 - 남녀 혼성의 교내 지도 및 교통 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다목적실	대의원 (72명)	각학급 실장, 부실장
인성 수련회	5. 24 ~ 5. 25.	- 파트별 주제부여 및 파트별 토의 “생활에서 불평등적 요소 찾기” - 토의 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청소년 수련원	1학년	전체



[그림 10] 학생회 임원 수련회



[그림 11] 1학년 인성수련회

2) 계발활동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일제로 실시되고 있는 계발활동 부서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관련 내용 운영이 가능한 부서에 시범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표 - 12>과 같이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표 -12> 계발활동 부서별 활동 내용

부서명	활동 내용	대상(명)
컴퓨터반	인터넷 양성평등 관련 자료 조사 [그림 12]	24
영화감상반	양성평등 관련 영화 및 비디오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과 비디오 시청 소감문 기록하기 [그림 13-15]	79
영어 Drama반	양성평등을 주제로 단막극 구성 [그림 16]	37
스케치반	양성평등 관련 포스터 및 캐릭터 그리기 [그림 17]	14
독서반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 감상하기 고정 관념 뒤집기 [그림 18]	54
배드민턴반	기능의 차이보다 서브 정확성에 도전 [그림 19]	75
골프반	체력의 차를 극복하고 티샷에 도전 [그림 20]	22
줄넘기반	남녀 구별 없이 같은 종목 익히기 [그림21]	59



[그림 12] 컴퓨터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13] 영화감상반 계발활동 모습

【영화감상문】

(1) 학년 (8)반 번호(2) 이름(박민정)			
1	영화 제목 어글리우먼		
2	시청 일시 2006년 (6)월 (16)일		
3	영화 내용 태어날 때부터 어둠만 접해왔던 올라가 자신이 태어난 1학년 일어난 미소 소녀인 아이들인 사람들을 알게하다가 한 형제에게 강제가 탄조나고 결국 형제 용기와 단결함으로 대항복을 되찾고 공신상을 받아 강제로 본 모험으로 돌아가면서 형제와 형제와 신념을 맞이한다.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마음속 울린 대사 및 장면</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랑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단결한 테레사 선생의 2 '난 장난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형제가 용이하게 말한 장면. 3 형제가 많은 사랑을 받쳐 본 모습을 보여준 후 나나 깨는 장면.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속 등장 인물 중 1명에게 짧은 편지글을 남겨주세요</p>	마음속 울린 대사 및 장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랑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단결한 테레사 선생의 2 '난 장난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형제가 용이하게 말한 장면. 3 형제가 많은 사랑을 받쳐 본 모습을 보여준 후 나나 깨는 장면.
마음속 울린 대사 및 장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랑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단결한 테레사 선생의 2 '난 장난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형제가 용이하게 말한 장면. 3 형제가 많은 사랑을 받쳐 본 모습을 보여준 후 나나 깨는 장면. 		
5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 BEST 3을 찾아주세요</p> <p>올라, 수레님 말처럼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감을 배우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주세요. 형제님이 풀리 안해서 용기를 갖고 본 모습 보여준 것처럼 늘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p>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 BEST 3을 찾아주세요</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레님이 올라에게 용기를 가지란 말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장면 2 형제가 수레님 말을 이해한 후 단결히 올라가 깨는 장면 3 2011년 카르타고 섬 공화국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넣어 영화 소감문을 써주세요</p>	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 BEST 3을 찾아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레님이 올라에게 용기를 가지란 말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장면 2 형제가 수레님 말을 이해한 후 단결히 올라가 깨는 장면 3 2011년 카르타고 섬 공화국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
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 BEST 3을 찾아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레님이 올라에게 용기를 가지란 말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장면 2 형제가 수레님 말을 이해한 후 단결히 올라가 깨는 장면 3 2011년 카르타고 섬 공화국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 		
7	<p>'어글리우먼'이라는 영화는 '사랑은 내면이 중요하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화음을 보여준 것 같아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나는 못생긴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싫어하곤 했었는데 그랬던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게 된다. 앞으로 올라처럼 되도록이면 고함치는 친구가 있으면 난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 용기를 갖고 세상에 보여줘!' 라고!!!</p>		

[그림 14] 영화감상문

양성평등 비디오 시청 소감문		
제(2)학년 (8)반 이름(안다빈)	일시	2006년 6월 3일
영상자료 제목	답게 답게 마법이야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편안하 게 써주세요.	1. 요정들은 왕자에게 능률한 외모, 용맹스러운, 재물과 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공주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이쁜 얼굴,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2. 요정들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왕자에게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왜 예전처럼 남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거부했을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여주고 싶어서, 게으러 지고 싶지 않아서
	2-1. 내가 왕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 일한다. 하고 싶은 일들을 맘껏 하고 산다, 여자를 존중해 준다.
	2-2. 내가 왕자였다면 결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항상 여성을 존중해 주고, 여자를 아끼고 알아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여성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3. 인형 '미미' 는 왕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곧 왕자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다시 옷생긴 인형으로 변한 것을 왕자가 보고 기겁을 했기 때문
	3-1. 내가 미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 같다.

[그림 15] 비디오 시청 소감문



[그림 16] 영어Drama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17] 스케치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18] 독서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19] 배드민턴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20] 골프반 계발활동 모습



[그림 21] 줄넘기반 계발활동 모습

3) 행사활동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교내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그 실시 내용은 <표 - 13>과 같다.

<표 - 13> 교내 행사 내용

행사일	행사명	대상	내 용		시상 내역	비 고	
2006. 5. 16. ~ 5. 29.	교내 양성 평 등 관 련 행 사	1,2학년	포스터 그리기	4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학교, 가정 등)에서 경험한 성차별 내용 ■ 양성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내용 ■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 ■ 양성평등 실천의지를 다지는 내용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 4명 장려 : 6명	분야별 출품 가능
		캐릭터 그리기	A4로				
		만화 그리기	8절지				
		4행시	A4				
		표어 짓기	A4				

2006. 5. 29. ~ 6. 3.	작품 전시 회 우수 작 선정 회	전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관련 작품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함 ■ 1차 - 담임교사가 분야별로 1편 이상 제출 ■ 2차 - 전시기간에 교사와 학생이 직접 분야 별로 자신이 선택한 작품에 스티커 붙이기 ■ 학생 - 1분야 이상 중복 선택 가능 ■ 3차 - 담당교사가 모여서 심사 		선정 작품 스티커 붙이기													
2006. 6. 3.	독서 토론 대회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관련 독서 토론회 		토론자 선정													
2006. 7. 1.	성 교육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관련 성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성역할 개념에 대한 강연 ■ 강사 : 임소연(상담전문가) 															
2006. 7. 11	초청 강연 회	1,2학년 , 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관련 초청강연회 실시 ■ 강사 : 김영란(제주여민회 회장) ■ 주제 : 생활 속의 양성평등 ■ 장소 : 체육관 															
2006. 7. 21. ~ 9. 2.	교내 양성 평등 관련 행사	1,2학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가족신문 만들기</td> <td style="width: 10%;">4절지</td> <td rowspan="6" style="width: 6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학교, 가정 등)에서 경험한 성차별 내용 ■ ‘양성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내용 ■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 ■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 </td> </tr> <tr> <td>광고만들기 (광고패러디)</td> <td>8절지</td> </tr> <tr> <td>영화포스터 (영화패러디)</td> <td>8절지</td> </tr> <tr> <td>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td> <td>A4</td> </tr> <tr> <td>시화 (시와 그림)</td> <td>8절지</td> </tr> <tr> <td>플라주</td> <td>8절지</td> </tr> </table>	가족신문 만들기	4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학교, 가정 등)에서 경험한 성차별 내용 ■ ‘양성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내용 ■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 ■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 	광고만들기 (광고패러디)	8절지	영화포스터 (영화패러디)	8절지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A4	시화 (시와 그림)	8절지	플라주	8절지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4명 장려: 6명	분야별 출품 가능
가족신문 만들기	4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학교, 가정 등)에서 경험한 성차별 내용 ■ ‘양성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내용 ■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 ■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 																
광고만들기 (광고패러디)	8절지																	
영화포스터 (영화패러디)	8절지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A4																	
시화 (시와 그림)	8절지																	
플라주	8절지																	
2006. 9. 20.	독서 토론 대회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관련 독서 토론회 		학급별 토론													
2006. 9. 28.	줄넘 기 대회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 오래뛰기, 번갈아뛰기, 마라톤줄넘기, 마주서서같이뛰기 ■ 참가신청 : 1인 2종목까지 신청 가능 ■ 경기방법 : 남녀 구분 없이 동시 시합 	종목별 1, 2, 3위														
2006. 11.	교내 체육 대회	전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경기할 수 종목으로 구성하여 진행 ■ 방법 : 종목에 따라서는 남녀별 구별 없이 경기 진행 															

(1) 양성평등 관련 교내 행사

일상생활 또는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남녀차별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느낌·대안 등을 포스터, 캐릭터, 만화, 4행시, 표어 짓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그림22~28]과 같이 전시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좋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림 22] 양성평등 관련 교내 행사



[그림 23] 우수작 선정 모습

양	초로 마음을 밝혀	
성	차별을 없애고	
평	등한 대지위에 '양성평등' 글자 새겨	
등	식처럼 동등한 차별 없는 사회	

[그림 24] 양성평등 4행시

<p>지워지는 남녀 차별 새로 쓰는 양성평등</p>	
<p>양성평등 마음가짐 밝아오는 우리미래</p>	
<p>남녀차별 일몰처럼 양성평등 일출처럼</p>	

[그림 25] 양성평등 포어



[그림 26] 만화, 캐릭터, 포스터 우수작품



[그림 27] 시화, 영화패러디, 신문 폴라주



[그림 28] 가족신문, 광고패러디

(2) 전문 강사 초청 강연회

평소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이해들을 해소시키고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그림 29], [그림 30]과 같이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그림 29] 전문 강사 초청 성교육 강연회(강사 : 임소연)



[그림 30] 전문 강사 초청 양성평등 강연회(강사 : 여민희 회장 김영란)

(3) 양성평등 토론대회

말 속에 녹아 있는 성차별·편견 허물기 등을 주제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채팅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성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 및 비판을 발표하며, 발표내용을 반론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그림 31]과 같이 교내 양성평등 토론대회를 실시하였다.



[그림 31] 양성평등 토론대회 모습

이상과 같이 학생회 활동, 인성수련활동, 부서별 계발활동, 초청강연회, 표어 만들기, 광고 패러디, 영화패러디,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서토론대회, 남녀 줄넘기대회, 체육대회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은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관행과 성편견적 사고의 문제점을 인지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양성평등의식 확립과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 의식을 좀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2년간 시행되는 시범학교(연구학교) 운영이 아닌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살필 수 있었다.

V. 결 론

이 연구는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게 바른 성 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명시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함양시키기 위해 실천 가능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생활 속에서 행동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이끌어 내기 위한 비판력과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남녀 간의 성차별에 관한 철학과 과학이 인류지성사에 뿌리 깊게 존재하여 왔던 과정을 고찰하면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양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임을 지적하였다. 양성평등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사실적 접근 노력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양성 간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의 성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길러줄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과정, 관련 교과에 나타난 교육내용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이념과 목적, 명시적 교육과정,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 교육구조와 교육환경 등 교육과정 전반에 나타난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방안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 확보, 학교 환경의 개선과 양성평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과 본 연구자가 시범학교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적용하였던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양성평등 교육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 인간의 가치 형성 과정에는 수많은 변인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온 그 사회 내의 지배적인 가치는 그

사회구성원의 내면에 잠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기도 한다.⁹³⁾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여성과 남성은 타고난 성차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양성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다양성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식의 자각을 통한 가치의 형성과정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전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나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갖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자신이 양성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전히 의식과 실천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성차별적인 의식이 오랫동안 내재하고 있어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식 전환을 통해 양성평등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생들의 삶의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양성평등 관련 교사 연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 교수-학습 활동 위주의 접근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 및 각종 교내 교육활동 위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본질적이고 체질적인 성의식 변화는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자기의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면의 수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교과 과정 일부나 학교 행사 등 제한적인 적용보다는 전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녹아 있고 이를 교수-학습 활동과 병행하는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형성에는 학부모의 의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학부모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위학교가 주

93) 고영애, “양성평등의 가치관 함양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가정윤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1.

체가 되어 학부모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중매체와 사회단체, 평생교육 기관들의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양성평등교육을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활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이고 정적인 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동적이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양성평등교육이 역차별이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평등한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양성평등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미래사회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역할과 양성평등의식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꾸준한 실천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은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넘어 인간은 누구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라는 윤리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2001),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고등학교)」, 문영사.
- 구인회(2002),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권영선·윤혜연(2002),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와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방안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연구보고서.
- 김재춘·왕석순[공저](1999),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5개 교과 양성평등 수업지도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제7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제용지초등학교(2005), 「양성평등 교육활동을 통한 성평등의식 함양」
- 로빈메이쇼트(1999), 「인식과 에로스」, 허라금·최성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창원(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02), 「양성평등문화 우리가 만들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여성가족부(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여성을 위한 모임(1992), 「일곱가지 여성콤플렉스」, 현암사.
- 여성을 위한 모임(1994), 「일곱가지 여성콤플렉스」, 현암사.
- 여성특별위원회(199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 오재립 외(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유현옥 역(2002), 「교육적 인간상과 여성」, 서울:학지사.
- 이상화(1999),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학”,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 이순형 외(1995), 「여성의 심리」, 서울:양서원.
- 임정빈·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학지사.
- 장하진(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정해숙·정경아·윤명옥(2003),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제니 티치맨(2000), 「사회윤리」, 백의.

제주동중학교(2006), 「교육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 제주동중학교.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2002), 「양성평등교육의 이해」,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철학연구회(2003), 「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피터싱어(1997),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한국교육평가원(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연구」, 한국교육평가원.

한국여성개발원(1987),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한인택(2002),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현장교육연구보고서.

허혜경·김혜수(2002),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학지사.

2. 논문

강영화(2004), “양성 평등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희호(2006), “고등학교 사회 ‘정치생활과 국가’ 단원에 나타난 성차별 내용 분석”,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영애(2003), “양성평등의 가치관 함양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가정윤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2005), “도덕과 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함양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희(2005),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분남(2003),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숙자(2006), “길리건의 ‘배려’관점에서 본 모녀의 ‘자기희생’ 경험과 소통에 대한 연구”,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정(2003), “학교교육의 성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주(2004), “중등교사의 양성평등 의식과 교육실천과의 관계”,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미영(2005), “교사 언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은(2005),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과 성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금교(2005), “사회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민호(2005),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영란(2005), “중·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 분석”,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욱(200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중보(2006), “역할놀이 수업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과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천의 차이”,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숙(2005), “중학교 도덕과 내에서의 양성평등교육 방법 연구 : Sadker의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Middle School

Jeong, Ji hyeong

Major in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soo)

Countless variables have conscious and unconscious effects on the formation of values in a person. In particular, a value that has been dominating the whole society for a long time is settled deep inside the society members and becomes hardly changeable. Accordingly, for students in their adolescence when self identity is established, it is very important to guide their fixed idea or attitude related to gender in a desirable direction (Chapter II).

The present study explored practicable teaching methods for instilling right gender roles and the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into middle school students. Of course, gender equality education is being educated currently in middle school, and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made until now. However, they have been fragmentary and, in some sense, contained elements of gender inequality. In addition, middle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is not so high (Chapter III).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limitations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existing education, and made suggestions for activating desirable gender equality education. Suggestions made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s (contents, teaching methods, number of classes, etc.); second,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 (change of the principal's view, change of school community, etc.) and teacher training; and third, practice of various gender equality education activities (education through autonomous activities, development activities, event activities, etc.) (Chapter IV).

Now gender equality has become a universal value. It is keenly required in the school field to teach adolescents, the main actors of future society, sound gender roles and gender equality.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gender equal society, correct understanding and steady practice of gender roles should be continued not only in school but also at home and in society. Ultimately, gender equality education of every level should be educ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ethical goal of perceiving and practicing 'the sameness and differences of all human beings' regardless of gender.